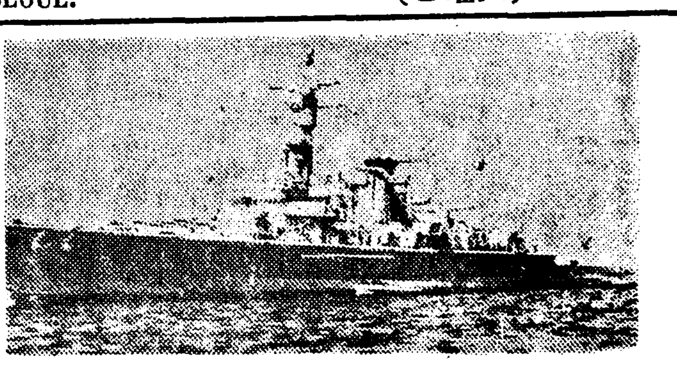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獨逸海軍의 精銳戰艦『도』號를 西政府空軍이 爆擊!

乘組水兵二十名即死、七十三名負傷

獨逸政府緊急對策決定



【伯林三十日發同盟】獨逸海軍精銳袖珍戰艦도이췰란드號는 발레아릭群島이비사島前海에서 西班牙人民戰線空軍의 爆擊을바더 乘組水兵二十名은 卽死하고 七十三名은 負傷하엿다 獨逸政府는 右公報를 接受하는同時에 急遽協議한 結果 斷乎한某種의 對策을 講究하기로決定하엿다 (寫眞은 도이췰란드號)

【발렌샤二十九日發同盟】獨逸袖珍戰艦아드미랄·시엘號인듯한 軍艦一隻이 二十九日 발레아릭群島이비사島沿岸에서 마요르카島叛軍根據地팔마爆擊에 向하는 西班牙政府軍爆擊機二台를 發見하고砲擊을加하얏스므로 飛行機도 이에應戰하야 水空壯烈한 十字砲火를交하엿다 爆擊機는 爆彈十二個를投下하엿는데 그中四個는시엘號에 命中하엿기때문에 艦上數個所에爆破가이러낫다한다

不干涉委員會에通告 某種의對策講究

도號事件에對해獨政府公表

【伯林三十日發同盟】神珍戰艦도이췰란드號爆擊에 對하야 獨逸政府는 三十日夜 左와 如히 公表하엿다

西班牙共和國飛行機는 數日前마요르카島港灣에碇泊한 英伊獨三國艦船을 爆擊하야 伊太利艦上의 將校六名이 戰死한以來 獨逸政府는 自國艦船의同港碇泊을 禁止하엿다 裝甲巡洋艦도이췰란드號는 不干涉調停實施에 對하야 國際海上監視를 委任마튼 兵力에所屬하는 軍艦인데 同艦은五月二十九日 土曜日 이비사島에碇泊中 午後六時부터 七時까지사이에 발렌샤 共和國政府所屬飛行機二臺로부터 突然爆擊을 바덧다 當時同艦은 碇泊時이엿슴으로 乘組將兵은無防備의 艦尾에 集合하엿섯다 飛行機二臺는 低空에 飛下하야 爆彈을投下한바 第一彈은 마치數日前 伊太利艦의 境遇와同樣으로 水兵『食卓』에命中되엿다 이犯罪的攻擊結果로乘組員中에서 戰死二十名、戰傷七十三名을 내엿다 그리고第二彈은 舷側甲板에 落下하엿스나 何等損害는업섯다 도이췰란드號는 卽時戰鬪準備를整備하고 戰死傷者를 上陸식히기爲하야 지브랄타르根據地로急航하엿다 同艦은 끗까지 발렌샤政廳飛行機에 對하야 發砲치 안엇다 발렌샤政廳에對하여는 不干涉委員會及獨逸政府가 國際監視에 從事하는艦船을 攻擊지안토록 再次警戒하엿슴에도 不拘하고 발렌샤政廳은 依然 態度를고치지안엇다 獨逸政府는 不干涉委員會에 通告하야 某種의對策을 講하기로 決定하엿다

死傷百一名 獨政府다시發表

【伯林卅日發同盟】도이췰란드號犧牲에對하야 獨逸政府는 三十日夜左와如히 發表하엿다

도이췰란드號가 발렌샤共產軍飛行機의 爆擊을받은結果 乘組員中二十三名은卽死、十四名은重傷、六十四名은輕傷을입엇다

領海侵入이라고 발렌샤政廳抗辯

【倫敦三十一日發同盟】神珍戰艦도이췰란드號爆擊에 對하야 獨逸政府가 强硬對策을 決定하야 『西班牙犯罪人의 不逞한 挑發에對하야 充分히 應酬한다』는旨를 表明한結果 不干涉委員會는只今 重大局面에 逢着함에 이르럿다 아마 三十一日 緊急會議를 開催하야 對策을 協議하리라고 觀測되는데 발렌샤政廳의 主張은 支持키 難하리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발렌샤政廳은 三十日午後 機先을 制하야 도이췰란드號의 爆擊事實을 公表하야 爆擊擧措로 左와 如히理由를表明하엿다

一、발레아릭群島附近의 監視는 佛國海軍에 委任되여잇고 獨逸軍艦이 同近海에 侵入할것이아니다

一、監視의 任務를 委囑마튼外國軍艦은 海岸線十浬以內에入하지안토록 不干涉委員會에서 決定되엿다 獨逸軍艦이 이비사島近海에 碇泊하엿든것은協定違反이다

以上 발렌샤政廳의 主張에 對하야 英政府側에서는 左의意向을 表明하고잇다

一、발레아릭群島의監視는 獨逸軍에委任되지안엇고 또 同群島를海上巡邏의根據地로할수업는것은事實이다

一、그러나各國軍艦이 必要에應하야 발레아릭群島其他 西班牙各港에 寄港하드라도關係업다

一、도이췰란드號自體의 損害에 對하여는 直接何等發表가업스나 獨逸政府는 第二彈은中板에 落下하엿스나 何等損害는업섯다 지브랄타르根據地에 航行할수잇섯다는旨를 述한데對하야 발렌샤政廳은 爆彈十二個를投下하엿는데 其中四個가命中되엿다고 主張한다

國際政局多端으로 積極行動은猶豫

爲先不干涉委員會에抗議提出

히틀러總統態度愼重

【伯林三十日發同盟】西班牙人民戰線軍이 神珍戰艦 도이췰란드號를 爆擊하엿다는 報를接受하는卽時 히틀러總統은 벨히스카던山莊에서 나와 三十日 午後急遽히 伯林에 歸還하엿다 總統은 월헬름街의 官邸에 入하야 卽時 閣僚를 招致하고 對策을 協議한後 夜에드러 콤뮤니케를 發表하야 『某種의對策』을 講究하겟다는 決意를 表明하엿다 但 윌헬름街의 消息通의 觀測에 依하면 히틀러總統은 國際政局의 現狀에 鑑하야 어데까지 愼重을 期하야 먼저 不干涉委員會에 抗議를 提出하야 不干涉委員會가 機宜에 適切한措置를 講究하지안흘가 觀測되다 그리고 不干涉委員會가 左顧右眄하야 荏苒討議에 時日을 徒費할境遇에는 如何한 行動을取할는지 豫測할수업스나現下國際政局이 緊迫된데 鑑하야 積極的行爲는 避할意向이아닌가 傳한다 (寫眞은 히總統)

도이췰란드號 지브랄타르入港 戰死者遺骸실고

【지브랄타르三十日發同盟】獨逸軍艦도이췰란드號는 三十日午後 이비사島로부터 지브랄타르根據地에 入港하엿다 艦上에는戰死者二十三名의遺骸가 누어잇고檣頭에는 이들戰死者에게 弔意를表하는半旗가 揭揚되여잇다

이든外相歸國

【倫敦三十日發同盟】이든外相은 聯盟理事會에 出席키爲하야 지난二十四日以來 쥬네브市에 滯在하고잇든가 巴里에 들러 델보스外相과 會談한後 二十九日 倫敦에 歸還하엿다

休會後二年만에 軍縮幹部會開會

本格的再開는今秋에

但獨伊兩國政府의不參加로

【쥬네브三十日發同盟】軍縮會議幹部會는 一九三五年 開會以來 休會를 繼續하고잇든바 마침내 三十一日 聯盟新會館에서 二年만에開會키로되엿다 會議는 前後二回에日하야 開催하고 佛國政府에서提案한 軍事費公開案을審議할 豫定이나 獨、伊兩國政府가 參加치안는 實情에 鑑하야 本格的討議를 開始하지안코 獨伊兩國政府를 招請하야 今秋再次會議를 開催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國防積極充實과 八大政策具體化

明年度豫算編成重點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特別議會의 開會와 明年度豫算編成에압서 今週부터 連續的으로省議를 開催하고 財政經濟政策의 具體化에 對하야 審議를 進行하기로되엿다

結城藏相은 右省議結果를 待하야 明年度豫算編成方針을 閣議에 附議하는 同時에 特別議會에서 說明할 財政方針의 態度를 決定할터인데 省議의 基調가될 主要目標는 大略 左와 如하다

一、明年度豫算編成方針

大體로 六月上旬 閣議에 附議決定할 方針이나 國防充實과 八大政策의 具體化에 重點을 置하고 도 物價對策을 考慮하야 金의 豫算만이 아니라 物의 豫算을 編成하야 物資自給을 促進할것

一、稅制의 根本的整理

增稅에關하여는 本年度부터實施한 臨時租稅增徵法을 恒久化하는것과 大差업는 程度로할터인데 明年度에는 特히中央地方을通하는 稅制의 根本的整理案의 立案及負擔均衡에努力함

一、物價對策

物價對策委員會는 各部門別로 小委員會를 設하야 專門的調査硏究를 進行하기로되엿슴으로 可及的 其調査進捗을圖하야 成案을엇는대로 速히實行할

一、爲替政策

市勢의 維持安定을 國策으로目下의 財政經濟政策으로 가장緊要함으로 爲替管理의 强化 不急品의 輸入抑制는 繼續하지안흐면 안되엿다 따라輸入爲替許可制는 下半期以後에도 實施할必要가잇다

一、國際貸借의前途 生產力擴充必要上 原料資材의 購入으로入超額의 增加는避할수업스나 一方輸出의增大 海運收入의增加도잇서 반드시 悲觀할것도업다 그러나輸出의 進展을圖하는同時에 金現送의 方針을 繼續할必要가잇다

一、公債及金利政策 最近公債市勢의發行價格이 깨여지고 金利의 引揚傾向은 業態를不許하나 急速人爲的工作을 加하지안코 自然順調로운 推移를

것도록方策을 講究하지안흐면 안된다

一、議會提出法案 前議會에서不成立된 關稅改正法案은 當然特別議會에 提出할것이나 其他 蓄濟銀行法改正案對增金附府蓄債券法案等을 提出하려고 생각한다

明年度海軍豫算 要求額八億突破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新補充計畫(第三次補充計畫)을 根幹으로한 自主的經濟軍備擴充에邁進하야 十二年度豫算六億八千萬圓의圓滑한實施를 行하고잇는一方 明年度要求豫算編成에着手하야 目下省部各部局에서 經理局에對하야 要求概算을提出하고잇는바 大體로 六月下旬까지에는 全部提出될터임으로 第一回豫算省議는늣드라도 七月上旬에開催될것이다 그리고海軍에서는明年度要求豫算概算의編成에 當하야 刻下의 時局에鑑하야 特히國防과財政의 調整에關하야 愼重한考慮를 拂하고 要求豫算은 可及的 最少限度로할 方針인데十三年度는 新補充計畫의 第二年度에드러 艦船建造도 本格的으로 實施하는同時에 各種兵力의 增强에 置重할터임으로 그要求總額은 實로八億萬圓(十二年度要求七億八千萬圓)을突破할것은 必至의 事態라고觀測된다

私鐵買收法改正 來通常議會에提案

【東京電話同盟】鐵道省에서는大藏當局의 要望에 基하야地方鐵道買收에 伴하는 國債證券交付에對한規定을 改正하기로되여 明春通常議會에 地方鐵道法改正法律案을 提出키로 監督局에서着着準備하고잇다 現行地方鐵道法에依하면 買收代價는 五分利附國債證券을 交付하기로 되엿고 昭和八年以來 低利公債發行에伴하야 따로單行法으로써 五分利國債證券을 時價로換算하야 低利公債를交付한다고規定하야今日에及하엿는데 이미五分利國債는 政府의低利借替로 말미아마市場으로부터 그림자를 감추고따라『五分利國債時價云云』하는規定은無意義하게 되엿슴으로 今回이를改正하야『大藏大臣이定한時價』에依하야 國債證券을 交付하려는것이다

獨逸新聞、一齊히 强硬對策主張

伊政府抗議內容支持

協定廿七個國에對한攻擊이라고

【伯林卅一日發同盟】도이췰란드號에 對한 爆擊事件에 對하야 獨逸政府가 交涉을 卅日夜까지保留하엿기때문에 獨逸新聞界는夜半까지 一切沈默하고잇스나 伊太利軍艦에 對한 西班牙人民戰線軍의 暴狀에 對하여는 大大的으로 報道하야 伊政府의 抗議에 全面的支持를 表明하고잇다

伊太利政府는 國際監視隊에 對한 攻擊을 協定參加二十七個國政府에 對한 攻擊으로 看做하고、斷乎 발렌샤政廳의 暴狀을 말하고잇는데 伯林各紙의 論調에 微하면 獨逸政府도 以上의 見解에 全然同感인 模樣으로 神珍戰艦도이췰란드號에 對한 爆擊도 不干涉協定二十七個國에 對한 攻擊이라하야 强硬對策을 主張하리라고 觀測된다

日本使節團紐育着 스테이트멘트發表

【紐育二十九日發同盟】日本使節團 門野團長以下 一行十六名은 二十九日午後五時三十五分 디트로이트에서 紐育그란드센트럴스테이순에 到着하야 米國輸出實業協會長以下 十二名의 歡迎委員의 出迎을바다 一行은 卽時 自動車로 宿舍 월도프·아프리아호텔에 入하엿는데 門野團長은 호텔에서 新聞記者團과 會見하고 左의 스테이트멘트를發表하엿다

日本經濟使節團의 主要使命은 一九三五年 카메론 폽스氏를 團長으로한 米國經濟使節團의 日本訪問에對한 答禮이다 米國使節團은 日米兩國의 良好한 去來와 友誼關係에 가장 必要한 相互親善諒解를 促進하는바어다한데 너무나 有名하엿스나 日本使節團도 紐育實業界의 有力者와 膝을交하야 懇談하고 同樣의目的에 寄與하려한다 米國委員이 本使節團의 使命上 有益懇切한 프로그람을 作成하야준것은 衷心으로 感謝하는바이다

米罷業團、警官隊와衝突 死傷卅八名

團體契約權不容認으로

【시카고卅日發同盟】CIO의鋼鐵勞働組合委員會는 리퍼블릭·스틸會社에 團體契約權承認을 要求하고잇든바 이것이容認되지못하야 同社七十工場의 勞働者一萬은 지난二十六日一齊히 罷業을開始하엿는데 시카고工場의 罷業團은 三十日 示威行列을 開始하야 警官隊와 衝突되여大亂鬪를演出하엿다 警官隊는마침내 發砲까지하야 罷業團을 解散하엿는데 罷業團은 死者三名을내엿고 警官十名을 負傷者二十五名은 瀕死의重傷을 負하엿다

朝滿防疫會議

二十七八日新義州서開催

지난二十七、八兩日新義州에서 開催된 朝鮮國境防疫會議는

一、安東省에잇서 家畜防疫機關의整備
一、暫定的國境防疫協定
一、家畜及畜產物의 密輸入取締
一、鼻疽防遏
一、越境交通牛馬의取締
一、防疫事務의連絡協調
一、豆滿江沿岸에 豚疫豫防注射實施

等六項目을中心으로 協議하엿는데 右會議에 出席하엿다가 三十日歸京한 西龜總督府衛生課長은左와如히말하엿다

會議는主로 이편에서 滿洲國側에 注文한事項이 만엇스나 今回의 會議에依하야 朝滿兩當事者가 國境防疫의 萬全을期하야 今後着着諸施設을 充實히하리라고 觀測된다

企畫部長更迭

【東京電話同盟】內閣資源局에서는 左와如히 企畫部長을 更迭하야 三十一日附官報로 發表하엿다

陸軍少將 橫山勇
補資源局事務官
海軍少將 星埜守一
資源局事務官被免
資源局事務官 橫山勇
命資源局企畫部長

人事·集會

▲山田遞信局長 渡東中이던바 三十一日午後一時三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歸任
▲李與傑氏(黃海道會議員)入京人事次來社

八面鋒

◇『總選擧結果로보아 政府의退陣은 當然한일이라』고、近衛公이 뒤스게發言。

◇建川中將中心의 右翼政黨運動이 漸次進展되는 눈치이니 林內閣의 물러갈時期도迫近?

◇春蠶初立會以來 여기저기서 製絲家와 生產者側의 말성이 頻頻。

◇俗談에 부드러운것을 明紬고름갓다하거든、明紬打令이 엇지 이다지까실까실한고。

◇全南의小作爭議、今年들고 벌서 一千三百件。

◇年豐코民安함은 萬人의所望하는바어니、엇지라 地主作人間에 말성을일삼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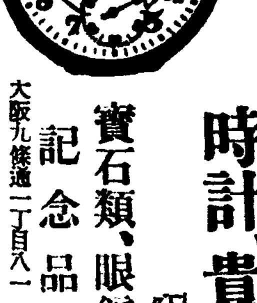
紙面一部變更

社會의 進展에따라 記事의 輻湊는 날로 甚해간다。그리하야 本社는 從來 朝夕刊二版制를 四版制로、그리고 五版制로 變更하얏는데 近日에 와서는 이것으로도 不足하야 今六月一日부터 紙面을 多少變更하야 地方記事를 一層攝取하기로 하얏다。即 從來 朝刊三版及 夕刊一版의 產業面은 地方綜合面으로、朝刊三版의 三面及 夕刊一版 七面은 產業面으로、夕刊二版七面은 中部地方面으로 하기로되엇다。그러므로 地方記事가 一層 增載될것은 勿論이오 資料의 一層嶄新함을 볼것이다。

六月一日

朝鮮日報社

シレネギター
最良ノ品質ト最低ノ價格!!
(業者に限り卸致候)
ナカキオルガン・軍隊ラッパ
NMI管樂器・ハーモニカ
製造卸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樂器店
電戎五一二三番


時計、貴金屬
東洋에서第一조흔品을
寶石類、眼鏡、銀器
다이야몬도 ダイヤモンド
記念品 메다루 メタル
大阪九條通二丁目八一
仲庭時計商店
電話西(四七)四二〇〇一番
商報送呈 郵券五錢要ス
振替大阪八一一四一番

夏物 羅紗洋服荷揃
大衆向 三ツ揃 オーバ ズボン
詰衿 上下服 朝鮮人向 レンコート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十八番地
田中宇商會
電話東三〇三五番
店章捺印ニ限リ定價表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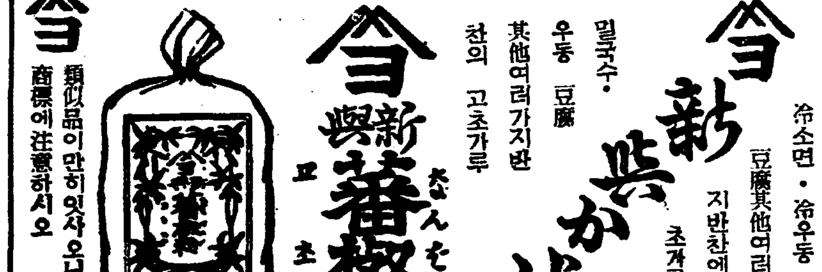
人絹綿布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並布、四綾、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 大阪南局第一三號函
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九番 振替大阪三三三番
商報送呈・見本五十錢要(切手)

가장近代的인
蓄音機와 萬年筆을
業者推奬합니다
業者限大卸值表呈 三錢切手封入申込乞
目下景品付大特賣中
大阪市西區新町二丁目
養老萬正堂

一錢入 袋物現金問屋
(商報送呈)
株式會社 廣島屋本店
大阪市東區博勞町一ノ二六

信用잇는
卸のデパート
日本百貨均一卸協會
大衆向各種雜貨 商報送呈・要六錢
最新ナ各種商品ガ 仕入モ裕ニ本商報一冊ニテ足ル
大阪市東區久寶寺町二丁目 小間物ビル

玩具仕入은 一次當店에
百般教育玩具卸問屋
新品在庫品豊富
型錄送呈要三錢
大阪市東區住吉町五十五
大阪百貨卸問屋勉强會 會員
角木商店
電話東一五八二番 振替大阪五九六九〇


新興 からし
冷소면·冷우동 冷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 고초가루
밀국수·우동 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 찬의 고초가루
新興 蕃椒粉 고추가루
類似品이만히잇사오니 商標에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からし コショ 製造本舖
釜山 山西商店
京城 阿部本店
〃 辻本商店
〃 吉川商店
平壤 桑田商店
〃 江口商店
鎮南浦 山七商會
新義州 中山商店
〃 重枝商店
元山 小野本店
咸南 西村商店
咸興 德元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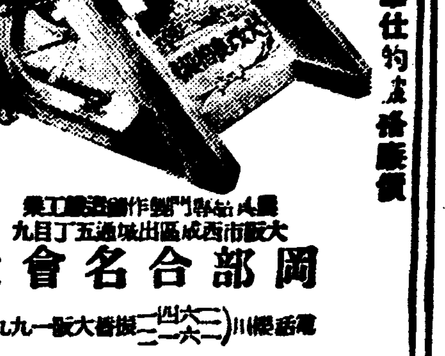
高級最新型各種蓄音機!
驚異的『謝禮品付』大亂賣!
オニク式再生音導裝置完成記念
NO 603 A ¥36.00 B ¥32.00 C ¥23.80
NO 46 A ¥38.00 B ¥28.00 C ¥9.00 最新ハコ型
NO 123 A ¥37.00 B ¥33.00 C ¥9.70 ポータブル型
NO 582 A ¥37.00 B ¥33.00 C ¥23.00
NO 63 A ¥44.00 B ¥29.00 C ¥19.00 スタンド型
本器御買上ノ方ニハ謝禮品付大賣出し
一、各社レコードの內貴殿の御希望レコード一枚(御指定ノコト)
一、レコードブラシ
一、レコード針五百本
無料にて添付す 京城銀座
ラヂオ兼用高級電氣蓄音機(五球、三球、四球各種)
御取引條件
一、代金ハ全額又ハ半額前金ニテ御送金願ヒマス
一、前金送金ナキトキハ勝手乍ラ御斷リシマス
一、御注文ハ品番號必ズ記入シテ下サイ
一、運賃ハ御買主ノ負擔ニ願ヒマス
一、御送金ハ振替京城二七五二二番ヘ
京城府黃金町
樂器店 銀座通信販賣部
振替口座京城二七五二三番

高級 アイスケーキ 機械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其他各種 冷凍機特價販賣。豫約開始
型錄進呈。製造營業秘法傳授
釜山府大廳町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株式會社 漢城銀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本局(2)二一六一番 振替口座京城二二〇五番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
出張所 延安、平壤、平壤大和町、素砂

星印コップ
カタログ進呈
釜山榮町
星硝子製造所

各種信託 迅速有利
低利貸出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贈呈)


實用的이며最新式인 岡部式
稻扱機를愛用하라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大廉價
今年에稻扱機는!
今秋의準備는只今하시오
(但定價半額以上先送注文者에限하야出荷함)
組立 一人用 二人用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官廳街에福神! 增給辭令

高物價時代의朗報 一割增給을斷行

鐵道、遞信、專賣局雇員傭人級 五萬名에게今日附로發令

군수(軍需)「인플레」에 박차를가하야 나날이 백반의 물까가 상향(上向)의 한길만밟아올라가고잇서 여름에 배가부르도록하목보는 계급도잇겟지만 일반「사라리맨」들은 이제야 바야흐로 그생활선의협위에서 멸계되여숙기피 우리는「월급을올리라」는 절둥한 소래는 전조선각층에 터저넘치고잇다 이러한때에 현명한자본가나 사업가들은 남보다하루라도 압서서 당연하게 해야할 그증봉(增俸)의 명랑보(明朗譜)를 과단하게던저서 사용인의 환심과 사무의능률을 넓대로 다내고잇는 현상이어니와 이러한때를당하야 체신국 철도국 전매국 삼국이 협의한결과 다른곳에 비교하야 현저히 그보수가적다고 인정하는현업 고원(雇員) 용인(傭人)에게 오는 륙월일일부터 일제히일할 증봉(增俸)을 단행하야 삼십일일 오전관청가에는 처처에환성이 노파젓다

鐵道局 二二九八九名

철도국에서는 유월의정기승급하야 중견사령을 발하엿다 그리기를당하야 고원용인 이만이천구백팔십구명에 대하야 일제히 고래일할에는 업든고원 일천팔백십칠인 증급을하기로되여 우선삼십일일 과일급용인 일만칠천 사백이십 부로 월급고원 삼천칠백 사십구명 이명에게증급을발표할터인데 그증급률은 월급백원이상은 십원을최고로 하고 백원미만자는 평균일할의 정도이며 급액총계는십만팔천삼백이 십일원이십일전이라한다 금번의 증급은 유월의정기 증급과는따로히 림시증봉을한것으로 이날의철도국에는 손에일도 잘안잡힐만큼 기쁨에넘처 책상머리마다 우슴과 이야기꼬치피엿다 그

吉田鐵道局長談

금번 림시증급 이상의 증급은 지금정기증급기에 고려키로하엿다 한다 최근철도의 려객과화물의 수송량은 감작히붓고 또한건설개량 공사등도 급격히 증가되여서 철도종업원은 주야를불구하고

遞信局 一六七〇〇名

다 이경비의 증가는 금번도는 회이다 우선 기정경비로부터 염출하게 체신국의 어 림시증급은 올가을 동귀로 엄마쯤 판게가 잇겟지만 종전부터 체신국 현업 고원 용인들이 다른 관청 회사의 사용인에 비교하야 그 보수가 적어서 증급하여주어야할 필요를 늣기엇든까닭이엇기때문이라고한다 체신국관계는 전조선각우편국과 우편소의현업 고원(雇員) 용인(傭人) 일만륙천칠백명에게 위험한공사에서 곤상한등에종사하야 잘그지켜올리하고 잇는 것은 서로기뻐하야마지안는바이다 그런데 종업원의 봉급대우는 그사무의과격한데비하야 부족한 늣김이잇슴으로 멀수부터 그개선의 필요를 늣기고여러가지로 연구를 한결과 최근의

專賣局 一一〇〇〇名

전매국에서도 금삼십일일부로 중급사령을 전조선각전매관서에 서교부하엿는데 고원(雇員) 용인(傭人) 전체에 엄할내외(최고 일할이분, 최저팔분)의 증급인바 이증급사령을바든총수는 아래와 갓다

總數一萬一千人 其中雇員一千三百六十八 傭人(職工을包含) 九千六百四十人

岩男監理課長談

림시일할증급에대하야 체신국 암남감리과장(岩男監理課長)은 다 일부)

辭令

月給百二十八圓ヲ給ス
月給百二十一圓ヲ給ス
月給百十四圓ヲ給ス
月給百六圓ヲ給ス
(各通)
月給九十八圓ヲ給ス
月給九十六圓ヲ給ス
(各通)
月給九十圓ヲ給ス
月給八…

사회 정세에 비치여서 급속히실시할필요를 갑작히 늣기게되엿스므로 고원급용인 전부에대하야 정기승급과는 별개로 유월일일부터 일제히 일할 정도의 림시증급을 단행하기로된것이 한다 따라서 금번도의 전에 이미증봉사령을발하야야 그러한사람은 날은 삼개월간의 중급총액은 륙십오만원이나된다 섭팔만원에달한다고 하는 면이 칠 일할증급 이번증급시킨 종업원일만륙천 칠백명은 요새물가등귀를 때고 생각해도 그급료가 적어서당 연히 증급시켜주어야할것이엇 는데 최근물가가 어려케동귀 되고보니 그필요성이 더절해 젓다고보겟다 이증봉을 한거 름더나아가서 하급의 판임관 (判任官)에까지 미처주고십흔 데 이것은방금중앙과 고려중에잇다

土木、林業 兩課도增俸

로목 림업량과도 증급의혜택을밧는 직원의대부분이 지방에 잇슴으로 륙월일일에 밧도록일 전에 이미증봉사령을발송하얏다

(사진은 증급사령이발표된 오늘 삼십일일에 발행한 철도국보의 일부)

本廳—三千五百名 地方—二千五百名

總督府官吏大增員 七月一日부터實施

약진하는 조선의팽창한예산에 따르는 총독부 거다소속관서의 사무는 번잡에번잡을더하야 이에 적응 대처하고자 총독부와 각지방관청에서는 대증원을 단행하기로되어 그관제개정안을심의실(審議室)로보내어 심의중이든바 일전에심의를 맛치고 법제국(法制局)에 회부하야 칠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엇다이와가티 관제가개정되면 주임관 칠명 주임관 칠십이명 판임관 일천칠백팔십구명 판임관 이하 일천 칠백 이 명에 달하는데 이것은 총독부 본청과체신국 철도국 전매국등 직할소속관서의 증원이오 이외에 지방관청 즉국비지출이 아닌도청 부천군청등의 증원을합하면 판임관이상 이천오백명에 달하며이에고원、용인등을합하면 실로칠천명을돌파하는 대증원이라고한다

嬰兒屍事件의 李慶淑釋放

犯罪嫌疑가업서

여섯구일오후네시반경 자동차부에서 피비린지체를가저 청여롱거리에그로회제를 제공한리경숙(李慶淑)(二〇)은 그동안종로서에서 엄중취조한결과 아무런범죄혐의도업는것이 판명되엿슴으로 시체는 삼십일검시만하고 돌려주어 매장케하엿스며 전기리녀도 삼십일일 내보내여사건은 완전히해결되엿다

不定期急行 運轉休止

철도국에서는 려객이 만키때문에 지난 삼월여십칠일 어래로 경성 부산사이에운 전하고잇든부 정기급행(不定期急行) 제 일회좌해는 요지음에는 필요가 업게되엿스므로 오는 어원부터 운전을쉬기로 되엿다한다

店金窃取

내 한경우 안경서 경 어셔구일오후영시경부

吸血父의自殺劇

딸을某男爵家에 妾으로너코 二萬金蕩盡後이奸計

삼십일밤 한강인도교 중간쯤에 배회하고잇는 중년남자 한명을 소관룡산서원이 발견하고한 강파출소에 데려다가 조사하 엿든바 어느평양(平壤)출생의정 (金承德)(五二)이라는자로 그 가식어변전 삼청하야 거적(가)에더를 말하나를 상래로가종 할 흡혈귀(吸血鬼)의 귀축도(鬼 畜道)를 밟어 오다가 그의딸이 되다못하야 소재를감추자 허위 자살을하야 딸의소재를 찾으려 고하는것을 이라는것이 판명되엇 다 전기김은 소화원년경에서기딸 춘심(春心)(二〇)이를 다리고상경 하야명위 노래판돈으로합쳐에저 그외아들 김룡(甲龍)(二〇)이와사 저축생동사중에 그날 그날을보 내기든중 재색이겸비한 그의딸 춘심이는 부내모남작의 어호로 드러가게되자 그동안 모은돈과 모남작에게서 바든돈을 합하야 이만원을 아버지에게 전하였다 김은 이만원돈을 중간에 두고 이에 추한쟁탈전을 연출하든남 어지 불과삼년간에 이것을전부 탕진하고그후매일가티딸의집에가 서금전을강요하야술을먹고잇섯다 그러든중 재작년삼월경 길에 서 부녀가도든제로 싸우는것을 본경서 김(金)형사가 발견하고 이것을 징계하야 일개월이십원 식생활비로 지출하도록 결말을 지엇든바 김은 돈을밧는대로술 을 먹어업새고 매일가티 본정 서김형사를 차저와서 딸을만나 게하여달라고 하든중 또대로안 되니까 전기와가티 자살을하는 척하야 딸의소재를 차저보려고 하엿든것이라고한다

壽松公普生出家

부내광화문통 팔십칠번지 벽에 잇는료리업자 송포(松浦)방 에서 고용인으로 잇는박은례(朴銀禮)(二〇)은 주인 업는틈을 타서 그 집안방 궤속에 드른 현금 이백사십원을 절취해가지 고도주하엿다 룡산서에서는 그 계출에따라 범인을엄탐중이다

旅館專門賊 鍾路署에就縛

부내각려관을근거로 절도행각 을하든자가 종로서원의손에 체 포되엿다 이자는 충남천안군갈 전면가전리(天安郡葛田面佳田里) 삼백륙십이번지 태생김영래(金 英來)(二〇)로 지난이십일부터 부 내서린정(瑞麟町) 백오십일번지 평화려관(平和旅館)에 투숙하든 중 삼십일오후세시반경그집 의 비품을 훔쳐서 총출기한대를 훔처 전당포에너흔것이 단서가 되여 그의구악이 폭로되게되엿는데그 는십수일밤열시경 광화문통구십 오번지 경신려관(京信旅館)에서 동숙중의 청진부포항동(淸津府 浦項洞)백이십번지외오호 랑업가 김하정(金河晶)(三五)씨의현금 시 계 시계줄등 시가이백원어치를 훔친것을 자백하엿는데 그는려

用達指定을 미끼로詐欺

자충 우편소재무주임 (郵便所 財務主任)이라하고 돌아단이면서 시내 가처에서 주문사기 (注文 詐欺)를하든자가 삼십일일 시내 서대문서에 체포되엿다 그사기 범인은 시내아현정(阿峴町)산다 는 김동선(金東先)(二〇)으로서 지 판에 투숙하면서 동숙중의 손 님의물건을 훔처 전당포에너커 나 파려가지고 숙박료를치루고 는 다른려판으로 옴겨가 가른 수단으로 절도를한 여죄가만흘 것으로 동서에서는 엄중추궁중 어다 난십구일 오후아홉시경에 아현 정이십이번지 미곡상 문봉만(文 享萬)의 상점에차저가서 자기는 아현정 우편소재무주임인데 금 후 우편소원들의 식료 일체를 용달을 지정한다고 감언이설로 속혀가지고 백미한가마니와 담 배한상자 양말등을 배달하여소 비한것을 비롯하야 독가른방법 으로 시내각처에서 사기행각을 하고 돌아단이든것으로 그피해 액이 상당히만타고한다

楊州郡下大火

八戶卄棟全燒

양주군오천면신북리 (楊州郡玉 泉面新北里) 최일선(崔一先)방에 삼십일오후한시삼십분에 그집부 억에서 불이나서 그집과 그이 웃련접한 팔호이십동을 전소하 고 여섯시에 진화하엿는데 원 인은 전기최의집 어린아이가성 냥으로 불작난을 하다가 난로 양이라하며 다행히 인축의사상 은업섯스나 손해는 약사천원에 달한다고한다

平康、安邊兩處에서 屍體發掘九十七個

東大門署第六次發掘隊歸還 被害者累計三百突破

지난이십팔일 동대문서백백교검 중대일행이 강원도평강(平康)방 면으로 출동한것은 당시기보한 바와갓거니와 일행은 평강군하 두곳에서 어십칠일까지에 예순 일곱개의 시체발굴을 마치고그 길로 함남안변군○○산 (安邊郡 ○○山)으로가서 서른개의 발굴 을마치고 삼십일일오후동서로도라 왓다 평강군하에서 발굴한시체는대 부분이 삼년전부터 겸거측전 까지에 살해한것으로 말장한 시체가만허 그비참한모양은마 치『현세지옥』을이루엇스며 ○ ○산중에서 발굴한서른개의라 체는전부백골로 화하야버려해 부의필요도 업섯고이것은모다 지금으로부터 팔구년전에 살 해아장한것으로 금화사건(金化 事件)이전의 것이라고한다 그 리고 이지방에는 어번에발굴 한수이상이 암장되여잇는듯하 나 원체오랜일이라 하수한자 들의 기억에도 전연업서 여 어상의 발굴을 중지한것이다 이것으로서 동서검중대가 중부 조선일대에서 발굴한시체수만도

鴨綠江豆滿江에 獸疫防止第一線

朝滿國境防疫會議에서統制키로決定 今後密輸入을嚴禁

지난이십팔일부터 어일간신의 주(新義州)에서 개최된 조만국 경방역회의(朝滿國境防疫會議)에 는 총독부에서 서귀위생과장(西 龜衛生課長)이 출석하야 안동성 (安東省)일대의 방역기관과비참 만주연안(滿江沿岸)의 돈역(豚疫) 사무련 락에관한것등 여러가지로의협정 하얏든데이중에 특히 주목할것 은 지금까지 만주로부터드려오 는 소(牛)말(馬)개(犬)닭(鷄)등 의축산물을 자유로 수입하얏 스나 금후로는절대로자유수입은 못하게되엇다 그내용이복 그동안 유예만기간관계로 만주의 돈역、 비저역(鼻疽疫)등 수역(獸疫)어 국경을넘어드러와서 조선축산의 피해가 막대함으로 이것을수업 하는경우에는 엄밀한검사를 행 하야 방역의통제와 축산장려의 엄격한 규범을세울터이라한다

徽文軍制覇

道商의奮戰도헛되이 全朝鮮中等庭球閉幕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 學校)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삼 회전조선남자중등학교 정구대회 (全朝鮮男子中等校庭球大會)제이 일은 삼십일오전아홉시부터 명 륜정(明倫町)에 잇는 불전『코 ―트』에서 열린바 작보 이후의 전적(戰績)은 다음과가트며 결 승전에는 사게의 강호 휘문고 보군과 경기도상군이 자웅을결 하게되어 도상군은 제일라운드 에서 대장조(大將組) 윤석장(尹 錫彰)김정규(金鼎奎)조가 훌륭 남어서·고군분투(孤軍奮鬪)하엿 스나 결국휘문군은 이대회에잇 서 제일회와아울러 두번재 우 승권(優勝權)을 차지하야 대회 부회장 김두헌(金斗憲)씨로부터 우승기와부상을수여하니 량일간 대성황을이루어든 동대회는원만 히막을다치엇다

◇準決勝

【徽文】勝【二高】

(第一라운드)
×(裵裕孝 金漢興)1…4(金慶鎬 朴喆圭)○
○(申東晟 金鍾培)4…1(崔昌熙 趙㓐煥)×
×(金南斗 孫永斗)3…4(康道淳 金在鎬)○
(第二라운드)
○(申東晟 金鍾培)4…1(金慶鎬 朴喆圭)×
○(申東晟 金鍾培)4…1(康道淳 金在鎬)×

【道商】勝【一高】

(第一라운드)
×(朴世煥 朴贊鳳)0…4(徐廷尚 白星基)○
×(李允燮 朴振遠)3…4(李春幸 尹光欽)○
○(金鼎奎 尹錫彰)4…1(梁在浩 李煥善)×
(第二라운드)
○(金鼎奎 尹錫彰)4…1(徐廷尚 白星基)×
(第三라운드)
○(金鼎奎 尹錫彰)4…0(李春幸 尹光欽)×

◇決勝戰

【道商】【徽文】勝

(第一라운드)
×(朴振遠 李允燮)0…4(申東晟 金鍾培)○
○(尹錫彰 金鼎奎)4…1(金南斗 孫永斗)×
×(金世煥 朴贊鳳)1…4(裵裕孝 金漢興)○
(第二라운드)
×(尹錫彰 金鼎奎)3…4(申東晟 金鍾培)○

崔朴組優勝

◇…昨日의庭球戰

前軟式庭球聯盟會長 安井氏盃 爭奪庭球戰은 三十日午後十時부 러 京城運動場코트에서 斯界의 精銳六十一組가 參戰한가운데열 린바 殖銀의崔永生、朴龍善組는 常勝軍 熊野御堂、權福仁組를接 戰끄테 물리치고 今씨―즌의覇 者로 君臨하엿다

【準準決勝戰】
○(淺野 黃華成)4…3(洪承杰 金鍾岩)×
○(崔永生 朴龍善)4…1(脇田 鄭士連)×
○(熊野御堂 權福仁)4…1(白潤輔 李正玉)×
○(宮崎 孫觀基)4…0(落合 先田)×
○(熊野御堂 權福仁)4…1(白潤輔 李正玉)×

【準決勝】
○(熊野御堂 權福仁)4…1(宮崎 孫觀基)×
○(崔永生 朴龍善)4…2(黃成基 淺野)×

【決勝戰】
○(崔永生 朴龍善)4…3(熊野御堂 權福仁)×

事故運轉手 張潤根逮捕

이십구일밤 부내송월정(松月町) 거리에서 사람을치고 그냥 다라난 자동차운전수는 내빼버린 후세 등대여섯개의 다수에달하 여 어 의에도 아직범인을 차 제출 치사하야 우증하고 (?) 오천일백륙십삼번호(?) 수장흔근(張潤根)(三一)은 삼십 저녁때 그의주인 전동정(典 町)十八번지 우홍식(禹鴻植)의 집에 도라온것을 동대문서원이 체 포하엿는데 동서에서는 이런악 덕운전수의 일소를기하야 그 엄벌에 처할방침이라고한다

天氣豫報

槪況 七百五十四미리의低氣 壓은 滿洲의沖繩附近의海上에 잇서서 모두東北東으로進行하 고잇다 高氣壓은 東北地方의 東海上에 七百六十七미리를보 이고 關西地方으로부터 北滿 에퍼지고잇다 北滿은雨、南滿 及國境은曇、其他는晴、日本內 地도曇이나 九州諸島와 琉球 諸島와 樺太島는 雨模樣이다 裏日本은 大體로 남세가조타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 日은 개이다 흐렷다한다 京畿 道全道도가 다

昨日最高 二四度二
同 最低 一〇度三
今朝最低 一〇度七
今日正午 二三度二

法政2A 早大0

【東京電話同盟】東京大學野球리 ―ユ…早大對法政第一回戰은 三 十日午後零時三十二分부터 神宮 球場에서 早大先攻으로 開始된 바 結局二A對零으로 法政軍이 先勝하엿다

早大 000000000
法政 00011000A 2A0

◇兩軍投捕=(早大)近藤―片岡、(法政)赤根谷―鈴木

立敎6 慶應1

【東京電話同盟】慶應對立敎第一 回戰은 三十日午後三時九分부터 神宮球場에서 立敎先攻으로 開 始된바 結局六對一로 立敎先勝 하엿다

慶應 000010000 1
立敎 030110100 6

第一回全朝鮮大學高專野球大會 決勝…京城醫專對京城高商戰은三 十日午後四時五十五分부터 京城 球場에서 醫專先攻으로 開始된 바 醫專軍은 第八回初에 敵失를 利하야 殺重한 一點을得한채結 局一對零으로 京城醫專軍이 優 勝하엿다

醫專 000000010 1
高商 000000000 0

◇兩軍投捕=(醫專)渡部―穴戶 (高商)黑崎―長野

鐵道3A 京電0

京城實業野球리―그!鐵道對京 電第二回戰은 三十日午後三時四 十分부터 龍山球場에서 京電先 攻으로 開始된바 結局三A對零 으로 鐵道軍連勝하엿다

京電 000000000 0
鐵道 00100020A 3A0

◇兩軍投捕=(京電)宮本―森 (鐵道)森田―沖

今日부터運動欄一部를朝刊四面에記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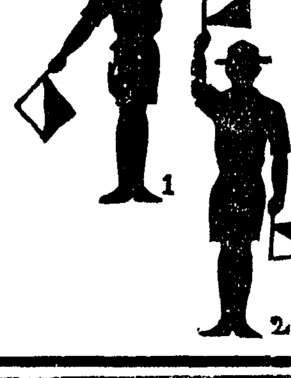
緊急告(급고)

회중에대한 무서운 신사실발견 회중은 어린아해때부터 업는사람이업시다―잇다 자양분을다빼라 먹고 여러가지로해롭게치며 괴롭게구는대 어리저리요동하는것만 은 남녀노소업시 다―일반인것을알것이다 그러대 회충이 사람 을 죽이는것을 최근에전세계에서 처음발명하엿다 죽어려서부터 배속에든 회충이점점자라서 적은 배암(蛇)만하게 큰회충이죽회 충의왕、(王)이삼사마리는 언제든지남어잇는것인대 사람이 좀 노쇠(老衰)하든지 다른원인으로 일시증원기가부족하여지면 이왕의 회충이이리저리요동하는중에 횡격막(橫膈膜)을 쿡찌르면 그바람 에사람은 즉사한다한다 대개로인으로서죽은원인을 모르는분은열 이면 열다―이회충이죽인것인대 그런줄을모르고 늙어서죽엇다고 한다 몃십년이라도더살수잇는수명을 우리인간이지금까지 무식하 여서 속히죽는것이다―그런대 이회충약은 보통파는회충약으로는 그회충의왕이 절대로죽지안는고로 아무리독하게만히먹어도 쓸대 업스니 전세계에서 처음발명한 신선당의『오리가』(OLICA)라 는약을 이원어치만쓰시면고만전멸합니다 생명을악가워하는분은일 업세는것이엇습니다 사람의회가잇서야한다고 무식한 노인들은 말 하나그것은 대단히어리석은말이오 잘알고보면살인강도를 배속에 다 밥먹여서기르는셈이오 목숨을끄너주는원수(仇)를키우는세음이 외다 아―무엇이던지알고보면두려웁다

약가 아해는일원 어른은이원

경성서대문네거리(제 일은행맛은편양옥) 선기 신성당약국직수입주식 회사

전화광화문三四番一〇七七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王覇에리버돈

アイスケーキ는!!

機構完璧、優秀無比斯界의權威

國益冷凍機

鮮內据付臺數第一位

京城府本町四丁目三八 電本局四七〇七番

國益冷凍機會社京城販賣所

大邱府元町一丁目

國益冷凍機會社朝鮮出張所

電話長一一四二番

(申込次第カタログ進呈)

歐米各國世界第一特効藥完備

光線科 米國生物 內科 醫學士

韓箕道醫院

京城鐘路パコダ公園正門東側隣

電話光化門③一八七八番

治麻球

男女淋疾의靈藥

患者諸氏여貴論보다効果에事實이證明되는 力의有無는試用後可知하겟사오며 用法禁忌注意說明書에詳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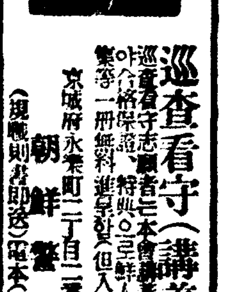
京城南大門通五丁目 製造元 發賣 救世藥館

定價 五十個入 一圓 百個入 一圓八十錢 …

電話②二九六九 振替京城二一六九

此外製劑四十餘種武錢郵票 보내시면醫引類及規則書付

癩病



一世間은風病을不治病이라고한다 事實風病에걸리기만하면그냥으로해서 一生을마치게되는것이다 그러나 風病은果然不治病인가 하면決코不然하다 何也오하면從來漢方의醫學으로나 西洋醫學의療法으로도 治療하지못하든 風病이라도 本院에서는 治療가된다 …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郵券)電本②三〇三〇番

樺太廳官營

海狗腎

明治四十四年日、英、米、露四個國의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元素! 堂堂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로두고하는말

老少를勿論하고 陽氣업서 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効를 가진樺太廳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 到着하얏습니다

求服을 願하시는 분은 內容說明書請求하시면 無料進呈함

新品到着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朝鮮釜山草梁町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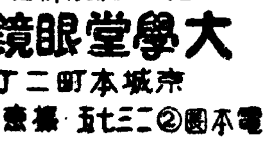
萬腫速治

特許 韓氏膏藥

HANSHIKOYAK

平壤府港町九十四番地

中城韓藥局



メカネ センモン

各眼科病院御指定

大學堂眼鏡店

京城本町二丁目

電本局②三二七五 振替一一二二

カタログ送呈(要三錢)

登錄商標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專務取締役 李圭元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②三二三八番 振替口座京城二二八一番

總販賣部 京城鐘路警察署前(裁判所前)

電話光化門七六五番 振替口座京城七二二三番

商標

千里

고추가루 都賣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本局二一八二番

時價로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口中殺菌劑

衛生口錠　カオル(가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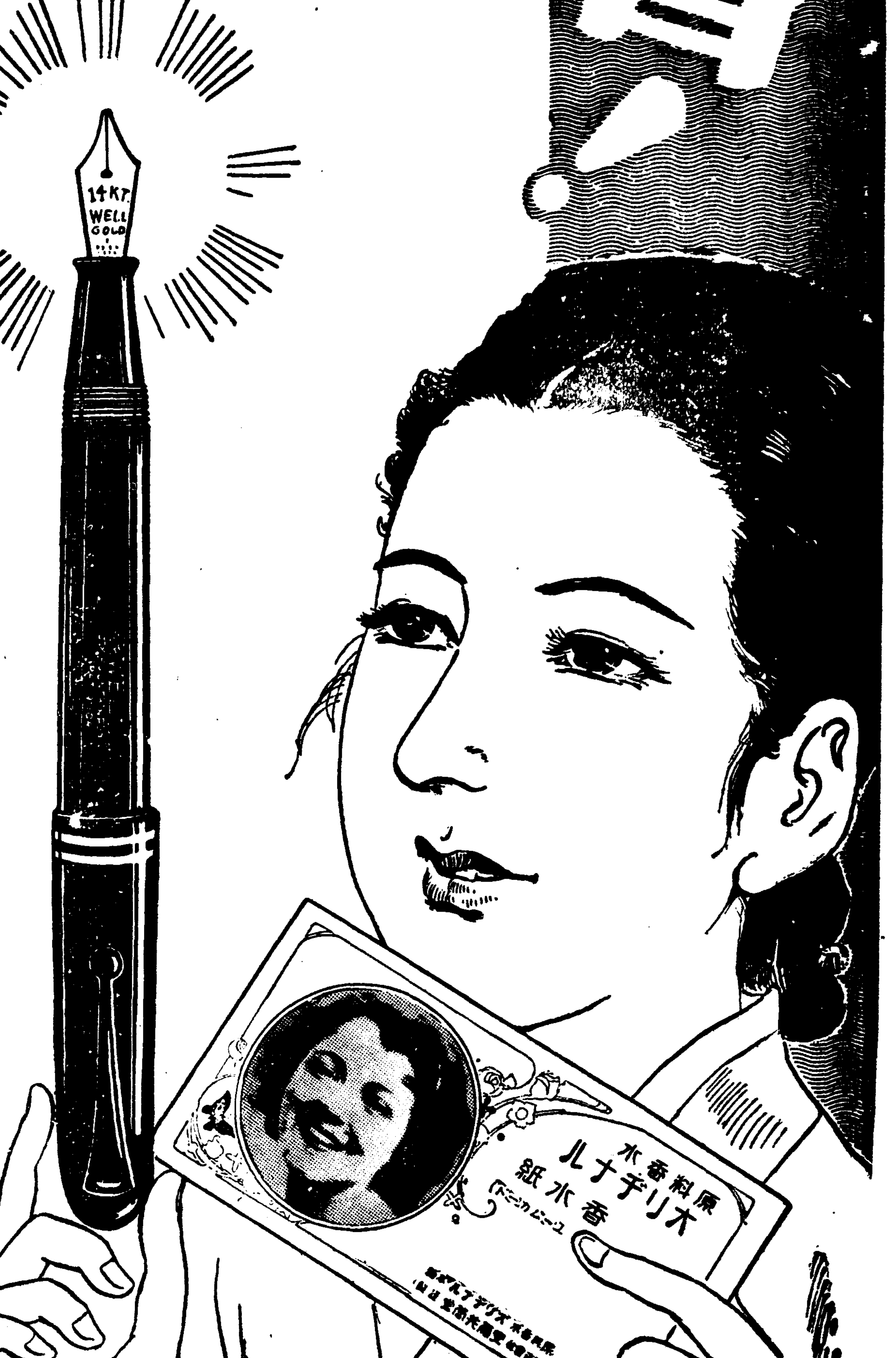
絶好의機會!

이번機會를놋치시면 두번
다시 이幸運은엇지못함니다

只今 곳! 藥店으로

二十名에對하야壹名의率로

高級ウォール(웰)萬年筆이당선된다!



愛用者大優待는 最大需要期까지
繼續하라하시는聲援놉흠에따라서

六月卅日까지延期하옵니다。

飮食後(음식을잡수신후) **外出時**(외출하실때)
疲勞(피곤)하거나 **倦怠時**(일에실증이나실때)
사람모힌곳에게실적……等에는

本劑의二三粒을服用하시면 心身의各機能의活動力을旺盛케하야 精神을爽快하게하며 입으로드러오는모든病菌을 豫防하는特効가잇습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포켓트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全道藥店諸位에게願함!
上記와갓치이번愛用者大優待를延期하엿습니다
繼續하야効能書를모아서보내주시기를바랍니다

本劑의二十錢以上의効能書(空函은不可)에住所氏名을明記하야사주신販賣店에付託하시든지直接本舖로보내주십시요

注意――効能書의郵送은반드시廿瓦(約五匁)마다四錢切手貼付하실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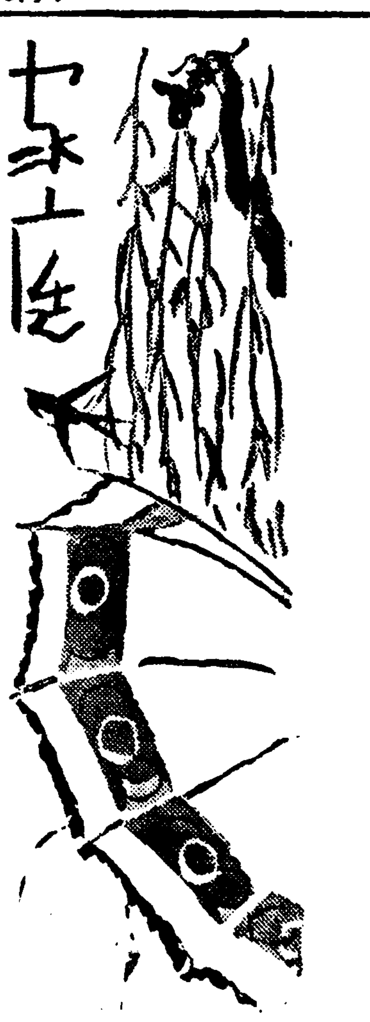
또右期間中 가오ー루를사주신분에게 販賣店에서 빠짐업시
조흔香氣가 오래가는 오리지나루香水紙(定價五錢)를 即時 進呈함니다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강바람

어린애들눈에도 "이쁜사람은 조와"

엄숙히 생각해야할 성교육의임무 여기에도부모의큰책임



어느가정에서나 어린애기에대하야는 남녀관게에대한것을 일체로 비밀에부치어둡니다。그래서 『어머니 어떠케 나를낫수』하고 물으면 『웅 삼신할머니가 점지를해서낫지』등의 거짓말로대답을해버리는것입니다。그러나 남녀관게를 의식(意識)하는것은 아주 어려서부터입니다。그러케 비밀에부치어가면서 기르는동안에 벌서 어느결엔지 거기대한 호기심(好奇心)이 일어나고 또 거기대한 욕심이 움즉입니다。그것을 비밀에 부친다는것을 도리어 거기대한 어른의 지도(指導)를 포기(抛棄)하는 셈입니다。그로인하야 청년은 그들의 타락과 모험과 질병이 생길뿐입니다

옛날에는 남녀가 일곱살만되거든 한자리에 안치지를 안는다고 하얏지만은지금은그러케 구식으로 남녀의 아이들을 따로떼여 놀릴수도 업거니와 그러케따로떼어 놀린다고 자연히알아지는것을 막아낼길은 업습니다 요사이 서양서는성교육(性敎育)이라고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거기대한 정당한교육을 시키자고 떠들고 그중에도사베트와 독일서는 착착성교육의 효과를 연구해가는 중인데 대체로 만 보아서도 성교육을 시키는 편이 차라리 비밀히하는 것보담 낫다고들 합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사내끼리나 계집애끼리 보담 석기어 노는것을 더 재미잇게알고 잇습니다。그러한 자연현상(自然現象)을 억지로감초아 두거나 막는이보담 정당히 지도해주어야만 할것입니다。

×

최근 동경서 각대학생에게 향하야 여자에대하야연모(戀慕)하는 감정이 언제부터 생겻느냐고 물엇더니 그대답은 비상히 재미잇는 동시에 참고될것이 만헛더랍니다。첫재로 그 나이가 아조 어려서부터라는 것도 참고가 될뿐이 아니라 대개 그런 감정이 이러나게된것은 하인이나 심부름ᄉ군으로부터 듯고배운까닭이라는것도참고가 됩니다。부모가 가르쳐주지안흐니까 주위에잇는 사람들로부터자연배우게되고 또 정당하게배우지를못 하는만큼 오히려 그릇된 방법과 목도구단을듯는대로 흥미잇시 기억하게됩니다。자녀를 가지신 부모들로서는 다시한번 기피 생각하서야지 그러치안타가는 그자녀일생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어 주게되는 것입니다。

×

어린 아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해라 민족을 사랑해라 하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인생생활의 엄연한 사실인 남녀관게도 잘가르처주어야할것이 아닙니까?그것이마치 도덕에도 틀리고 예절에도 어긋나는것가티 쉬쉬하여야 그아이들이 자연히 눈떠오는 그것을 어떠케막습니까?성교육의 조혼방법으로는 학교에서 남녀공학(男女共學)을 시키는것입니다。공학하는 아이들사이에 서로 서로 이해도늘고 지식도생기게될것입니다。그러나 그것도 가정안에서 적의하게 교육하는것만 갓지못합니다 서양서는 대체로 어느정도까지 실행하고 잇는셈인데 조선과가튼데는 그런교육이라니 아직 턱도업는 소리입니다。

남자의모냥내기 오해말지어다

분과연지곤지는당치안치만 깨끗하게는꾸며야할일

『사내녀석이 모양은보아서 뭘해!』 아주 으젓하게 이런말을 하는사람이 잇습니다 그러치만남자도 역시매일화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아가씨와 귀부인네 처럼이야하지안켓지만어쨋든 화장이라고이름지을수잇는 치장을 하는것이니까 『나는 절대로 화장은안하다』이러케버리는남자가 잇다면 어런사람의 이름은 쉬대문명국신사면부록에서 쑥빼버려야할겝니다。

화장이란 아양을떨고 교태를부리고 하기위해서 치장하는 의미의것이 아니라 건강과 청결을 표시하는사회인의 례절에 속하는한가지일것입니다。

머리 신사는 먼저머리털에 대해서항상손질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한달에 몃번식 리발소에 가는것도 필요하지만 매일 머리에 비듬이 솟지못하도록 머리를감고 빗질을 하고 머리기름을 바르고해서 머리카락하나 따로떠러저잇지안케 반드럼히해야 합니다。

머리를 감을때에는『샴푸』나 비누를 더운물에 타서 그것으로때를 뺄것이며 맨나종에는 깨끗한물에『레몬즙』이나 먹는초를 한수까락쯤타서 이것으로 머리를감으면 머리털이 뻣뻣해지지안코 윤이남니다。

그다음에는 머리빗는빗인데 예쁘나이든로 맨드는것은 부드럽게 빗는머리에 조코 물소(水牛)뿔로 맨드는것은 착 부처잇는머리에조코 빳빳한 머리거나 연한머리 어느편에고 다조혼빗은 대모로 맨든것입니다。

『헤어토닉』은 매일뿌리는 것이 비듬을막고 머리에 영양도 됩니다。

포-마드、즉 머리기름은 광물성과 식물성 두가지가 잇는데 외국에서온것 즉박래품은 거지반다 광물성입니다。광물성의것은 냄새가 조코 윤도 기름끼잇게 빤들빤들하지 안허서 좃습니다만 머리털을 위해서 식물성의것이 조습니다。

또 머리에 뿌리는 향수에는『우테코론』가튼것이시원하고 머리에대해서 자극도 덜해서 조습니다。너무 강한향수를 매일 머리에뿌리면 머리털의 질이 약한 사람은 쉬 대머리가됩니다

얼굴 남자의피부는 여자의것보다지방분이잘되니까 매일 조혼비누로 세수를아니하면 별안간 검어지는수가잇습니다。

그리고 일과의 하나처럼 수염은 반드시 깍그십시요 수염을 보기조케 기르는것은 별문제지만 그러치안코 깍근수염이라 텁부룩하게자란것은 궁상스럽게 보일뿐더러 숙녀제씨가 결코 환영하는배아니옵시다。

수염을 깍근뒤에는 반드시 크림이나 화장수로 수염터를 보호해야합니다 외기와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는『배니싱크림』이 적당합니다。

그외에 아침저녁으로 어닥그시는것은 엇지마십시요 누-런이빨이에다가 구취가나면 아무리 반반한신사라도 갑시뚝떠러지고맙니다。

손 머리털과 얼굴을 번쩍번쩍하게 꾸며노핫더래도 손끄테당배ᄉ진이끼어 누-러타든지 손톱이닭의발톱처럼 자라도록내버려두어서는 모양사납습니다 그럼으로 손은항상깨끗이가지십시요。손!손이얼마나 소중히쓰이는것입니까

손가락에 물든담배ᄉ진은 레몬을 쓰러가지고 문지르면 대개는빠지고맙니다。

그만치하고……이외에 젊은청년신사들을위해서 요즘록별한화장품이 나도라다닙니다만 분을바르다던지 볼따구니에 혈색을보이기위해서연지를칠하고 심하면 입술에까지빨갱이칠을 하는것은 좀 문제입니다。남이정신ᄉ병자로보면얼입니까 엇잿든 남자의얼굴치장은 청결하게해서깨끗하게보이는것을『모토』로 삼으실것입니다。

피장파장

『동익이 하고 상천이 하고 팔씨름 하면 누가 이기니』

『어림잇나,상천 이가 이기지』

○

『다름박질 하면 누가 이기니』

『동익이를 못따러』

『그럼 공부는누가 잘하니』

『다잘해』

(글쓴사람 정진영)

맛나게잡술라면 紅茶 우유를너흐세요

레몬티ㅡ는진맛이안납니다

요근래 홍차를애용하는가정이 점점늘엇습니다만 홍차를선택하는법이라든지 맛잇게끄리는법은별로연구안하시는모양입니다。홍차의조코나쁜것은 몬저그나는곳에따라 결정되는데 우리들에게 가장고급품으로 알려진 『립톤』차는 적도(赤道)부근에서 재배되는『안삼』종의 『씨일론』차입니다。이와함께 구미사람들이 즐기는고급품에 인도북방에서나는 『따-질링』홍차라는것이잇서 그향기가대단히 조습니다。

대만(台灣)서재배되는 홍차는 이『따-질링』홍차와 근사한것이라고합니다

홍차의조코나쁜것은 향기와빗갈과 입파리된험이를보아서 표준을 정하는것인데 밧작마른차는 비츤 검은것이조습니다 입파리안에 끼어잇는 하-얀코가는털은 나무가지끄테나온 싹이니까 이것이 만히석거잇슬수록 조코、또 이파리가잘고 고른것은 어린입파리이니까조코 고르지못하고 딴한것이 데려석긴것은말하자면 적격지차로 맛과향기가 덜합니다。홍차를맛잇게끄려먹는법은 사람에따라다르지만 밀크를타서 먹는것이 차의향기를가장만히나게해서 먹는것이될니다 전문가들 홍차의맛을 시험해보는데 밀크를너허서 밀크맛이강하야 홍차의냄새가업서 지는것이라면 그홍차는 조치못한것이라합니다

『레몬티』로해서 먹는것은홍차의『앗카리』성인 레몬의산성과 중화되어버리기때문에 정말로홍차의맛을 죽기는데는부적당합니다

홍차를먹는데는 몬저 찻주전자에 뜨거운물을너허 가시어서 따뜻하게합니다。그리고는 한사람에 차사시로 한사시의홍차를너코 다시끌는물을 부어뚜껑을덥고 일이분동안 두어두다가 에따릅니다

무슨차고간에 물이중요한 것이잇스니 몃번식 끌엇다가식은물을 또끄린것이라든지 쇠주전자에끄린물이라던지는 맛이업습니다。그리고干가 제일조습니다 홍차에넛는사탕은그라뉴가튼것을사서 타서 가기에서백설탕가른것은 라서는 결코제맛이안납니다

함부로못바를 머리물드리는약

나쁜것을쓰면머리가허러

늙으신분은 허연 모발이나 염을 날리시는것이 겨에어울릴뿐이 아니라 고상해도 보이지만은 그러치안할 나이에새치가 머리를 더펴서는 보기흉합니다。그러니까 그런분들은할수업시 약이라도 발러서 머리를 물드리시는것이 조습니다。

지금 화장품ᄉ가가에서 파는약물은 수무나무 종류나되는데 그품질도 머리ᄉ속이허는것조곰가서 벗겨지는 것등의가지가지입니다。자기체질을 생각해서 맛는것을 사야지그러치안해서는 머리ᄉ속이 몹시헐어서 욕을당하게됩니다。

보통으로 머리를 물드는약물의 원료는 주장『파라페니렌지아민』이라는 극약을쓰는데거기다가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를 석거서 맨드는 것입니다다이『파라페니렌지아민』이라는 극약은 체질을 딸아서 살이헐게되는 분도 업지안흔것입니다。그러나 오래가고 빗갈이 윤택하야 조습니다。만일 헐지만 안는 분이라면훌륭한약입니다。

그 이외에도 초산은(硝酸銀)과황색유화(黃色硫化)암모니움을 석근것등이잇스나 그것은 헐지를 안는대신 윤기가 업고 곳 벳기어 집니다。제일조키는 중국이나 페샤에서나는 식물로부터 뽑아맨든『헨나』라는것으로 그것은 윤기잇고 오래가고 그러타고헐지도안흐나 갑시 너무 비싸서 여간ᄉ사람이 사쓸수가업습니다。

만일 머리ᄉ속에 종기가낫거나 상처가 잇슬 때는 자극이 심하니까 물드리는 것을 잠시간 참으십시요。그리고 물드리기전 이마 살쩍 귀위 목덜미가튼데 와세링이나 콜드크림을 발러 두어서 즉접약물이 살에 못지안토록하십시요。약물을 칠할 때는되수 잇는대로 속히 칠하여야합니다。그리고 칠하고나거든 곳 미지근한 물에 머리를헤우는데 그때둔을 씻어야 한다는것도 이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머리ᄉ속이 헐거든『아연화오레프유』를 바르고 붕산수로 습부를 합니다。칠한뒤 즉사만지는것도아니니 늘두의해 두서야 합니다。

삼복더위도범접못할 "선선한대청마루"

그러자면안부인의공력이필요 길들게하는데는쌀겨로닥글일

날이 더워지면 집안ᄭ기문지 때문에 자연지저분해지고 따라서 더러운생각이 나게됩니다。깨끗하게 반들반들하게 닥거서 거울처럼된 대청마루에 화문석이나 깔고서 뜰에핀 화초를 바라보다면 한결더시원할것 갓지안켓습니까

그런데 마루를닥이나도록 닥자면 여간한정성가지고안됩니다。아침저녁으로 그저아무러케나걸레ᄭ물을 바르드시해서 닥거서는될락시업습니다。여러분도 잘아시지만은 우리네 마루란 때가무터 옷칠해논것처럼 새까멋습니다

◇

그럼어떠케닥글까? 마루닥는약은 가가에서 팝니다만은 빗산것을 사서쓸필요까지는업고쌀겨(米糠)를 정미소에서 구해서 다그면됩니다。지금부터 닥기시작해서 칠월칠석쯤가면 참말대리석가튼 마루가되고말것입니다。쌀겨를 쓰는방법은 몬저마루를비로깨끄시 쓰다음에걸레질을한번합니다 그다음에는 헌내의나다른 녀마로 마른걸레질을 하고서는 쌀겨를봉지에너허서 그것이새지안토록 베주머니에너흔 이것을가지고 문지릅니다 그런데너무힘드려 문지르지안허도 조습니다。

가정의학

여드름과변비

문 얼굴에 여드름가튼것이나며 약으로 곳치면 또나고하니 무슨 치료방법이 업슬가요 (平北A生)

답 세간에서 말하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은 젊어슬때 내분비선 생식선등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소화장해 특히 변비되기쉬운사람에게 오기쉽습니다。얼굴을 늘깨끗이하며 지방 몬지등을 늘 씻스며 변비중이 잇는사람은 소화제나 변비약을먹어 하로에 한번식은 꼭 대변을보도록하는것이 조습니다 (城大病院皮膚泌尿科 鄭槿陽)

겻땀내나는데

문 이십칠세된 미혼남자이온데 겨드랑이에서 땀이나고 독특한 냄새가납니다。원인과치료법을 가르켜주십시요。(平壤江S生)

답 겨드랑에는 땀을분비하는 선(腺)이잇습니다。그땀중에 휘발성지방산(揮發性脂肪酸)이 석겨나오기때문에 독특한 냄새가 나는것입니다。치료로는 一〇%홀마린을발르거나 엑스광선을쪼입니다。심하면 외과적으로 겨드랑의 피부를 소수술해떼여버리면 조습니다。(城大病院皮膚泌尿科 鄭槿陽)

날때부터털이적어

문 금년 십사세되는 소녀인대 날때부터 머리에 털이업서 고생중입니다

답 나서부터머리에 털이업스시다면 아마 낫기가 어려울것입니다。一%승홍주정(昇汞酒精)을매일 두번식 바르시고 태양등을쪼여보십시요。(城大病院皮膚泌尿科 鄭槿陽)

クラブ化粧品

特例前替奉仕데ㅡ擧行

六月十四日부터十四日間愛用家各位에奉仕

구라부化粧品、가데이化粧品本店은一般愛用家各位平素의甚大한愛顧에報答코저全國各代理店全國各販賣店과協力하야 六月二日(値上實施翌日)부터十四日間即

六月二日부터 六月十四日까지

今回價格改正의專賣特許藥用구라부煉歯磨、半煉歯磨、粉歯磨及綜合호루몬含有구라부乳液、구라부비싱、가데이洗粉等에對하야特例前替奉仕데ㅡ를開催하고同期間中에限하야全國各販賣店에서特히前替價格으로써謝恩奉仕賣出을擧行코저하오니아무조록微意를諒察하시고一層愛顧하여주심을懇願하나이다

昭和十二年六月一日

クラブ化粧品 カテイ化粧品 クラブ歯磨 總本店 中山太陽堂

クラブ化粧品御愛用家各位

價格改正謹告

昨年以來原料의高騰에따라他商品은임의價格을引上함에도不拘하고구라부化粧品은最優良品을提供하고價格改正도多大한犧牲을不顧하고今日에至하기까지참을수잇는限참아왓지마는諸般의事情上不得已當六月一日부터구라부化粧品數十種中第一回分으로拾壹種만下記와如히改正하게되엿사오니아무쪼로弊店의微衷을賢察하시와贊成하여주시오며一層愛顧하여주심을千萬仰望하나이다

品名	種別	改正一個小賣正價
クラブカテイ洗粉	布袋入	一袋七錢 一函十二錢
クラブ乳液	新瓶	六十錢
クラブビシン	中瓶各色	四十錢
家庭一品クラブ煉歯磨	チューブ入特大	五十五錢
家庭一品クラブ煉歯磨	チューブ入大	三十五錢
家庭一品クラブ煉歯磨	チューブ入新大	二十八錢
家庭一品クラブ煉歯磨	チューブ入中	十八錢
家庭一品クラブ煉歯磨	チューブ入新中	十三錢
潤質半煉クラブ歯磨	大罐	十八錢
家庭一品クラブ歯磨	特大袋	十五錢
家庭一品クラブ歯磨	大袋	八錢

クラブ化粧品 カテイ化粧品 クラブ歯磨 總本店 中山太陽堂

初夏風物詩

가는듯 머무는듯 저기 저 휜돗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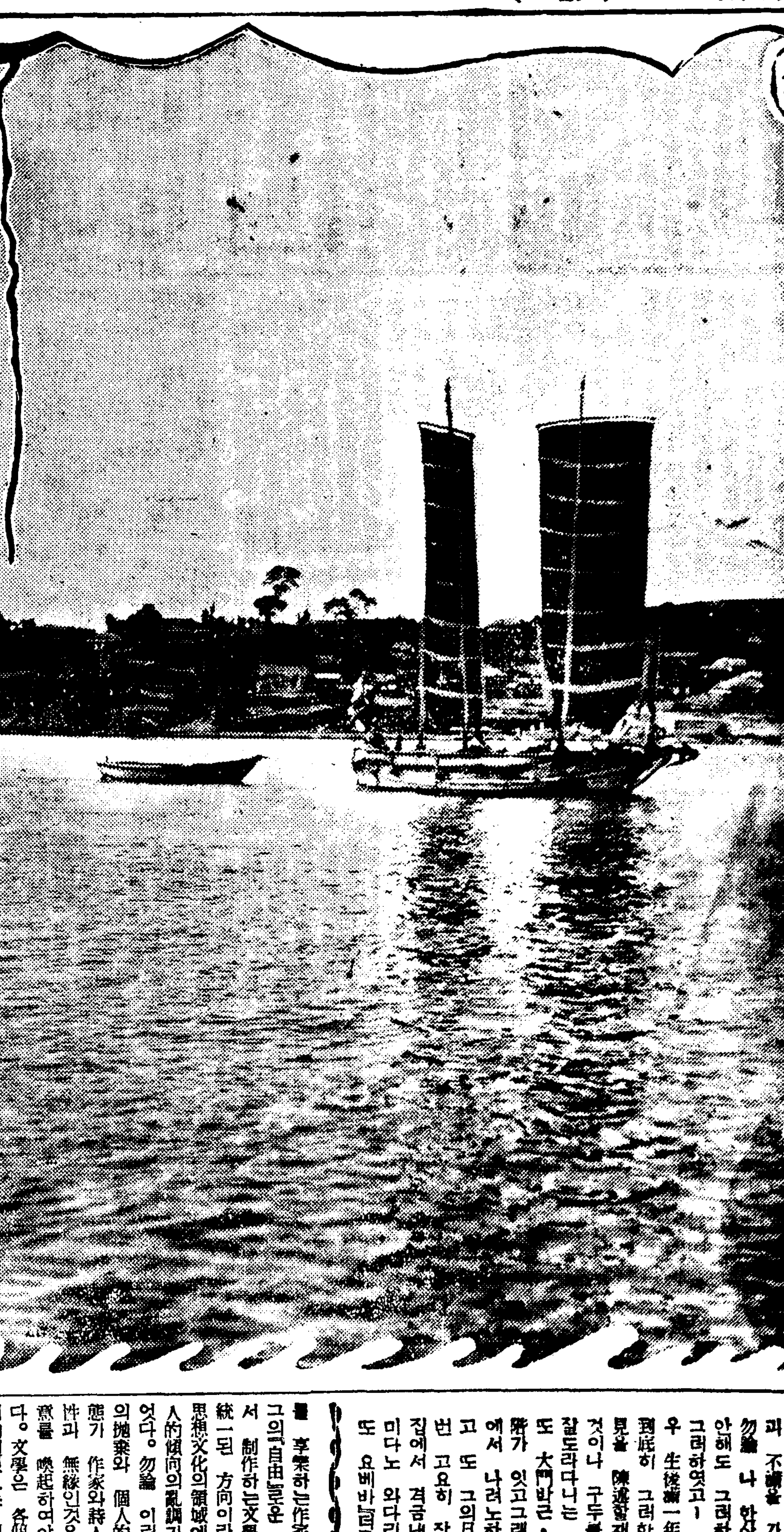
黃昏에 저즌 外帆의 布帆은 無限한 鄕愁를 이끄러 寂寞한 碧波上에 한줄기 旋律을 지으면서 그윽한 太古話를 이야기한다.

저멀리 보히는 高架線으로는 또 무슨 야단스러운 煙波가 오고 가는가? 人世의 風霜이 모두 다 귀밖게 일이거니 名利도 업고 是非도 업는 여기야말로 진실로 天國에 源源한 거룩한 境地이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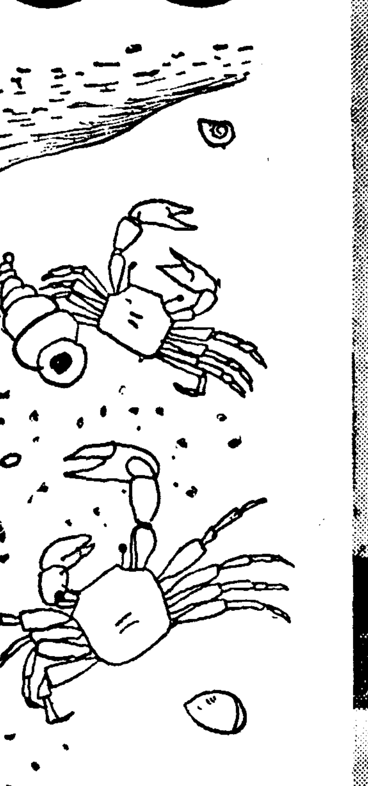
구름은 오고 가고 갈메긴 안고 뜨고 모두다 自然 그대로이거니 江村 두어집에 저녁 煙氣 가늘게 이니 漁父여! 한곡조 불러보리라.

夕陽이 비겻스니 그만하여 도라가자、돗지어라 돗지어라 岸柳汀花는 구비 구비 새롭고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三公을 부럴소냐 萬事를 생각하랴。

—唐人里에서— (右錄 尹善道 詩)



學藝



告發의精神과作家
—新創作理論의具體化를爲하야—
① 金南天

朴英熙氏等의 思想的傾向의 變遷過程과 그것의 社會的根據를 闡明하는 短文中에서 筆者는 다음과가튼主張을 일직이 어느機會에 記述한일이잇다。

—文學運動이 均衡된步調를 가지고 나아갈때에는 自我의 問題는 거지반 集團의問題에 『從』屬되엇고 階級的利益과 個人的利益과의새에 矛盾이생긴다든가 運動全體와 個人과의心理의새에 어떠한 間隔이생길때에는 그것은 前者에따라서 後者는 두말업시 從屬될것으로 되어잇서서 一種의 生活의一元化가 可能하엿다。그러나 背後에 擴大되는 勢力의夢想을 일코 熱狂的인行進의아페서 想像치안헛든深淵이 그를 드리켜버릴려고할때에 自我의探究와 人間에의歸還은 드디어 인테리겐트藝術家의肺葉에 좀먹기비롯한것이엇다。—

다시말하면 自己의運命을 集團의巨大한運命에 從屬시키고 自己의表現을 이속에서만 發見해오든時代에잇서서는 集團과個人과의새에 넘볼수업는 文化思想上의 不一致는 表面化될餘裕가 업섯고 各個人은 些少한不一致를 實踐過程속에서 解決하야 그곳에는 一定한客觀的方向과影響미테서 一致하야 自己를이끌고 나가는統一된方針이라는것이 잇슬수잇섯다。作家는 이것으로부터의 『逸』脫을特戒하면서 創作活動에 從事하엿고、評論家와批評家는 이統一된 方針의嚴正한 樹立을爲하야 作家와 緊密하게協働하엿다。設或 이러한 作家와批評家의 指導力이 어떠한誤謬를犯하고 그곳에서 아직도低迷하고잇는 危險한 狀態를 過程하고잇을때에도 이 藝術家들의 方向의過誤를 是正하고 이것을 그릇된길로부터救出하여줄 明確한 影響力이라는 것이 存在하여잇섯다。

그러나 하로아침 歷史의行程이 이러한것의 一般的인 退潮的現象을 우리의아페 强要할때에 集團性의미테 從屬되엇든作家와批評家는 自身의出身階級을 따라 一介의 孤立된自己로 歸還하고마럿다。이들은 그전날集團性의미테 從屬되엇든것에 對하야 그것을 歷史的으로 正當히 評價하는代身 小市民的 恣意우에 놉다랏든 制肘力을 一方的으로 그릇되게 回想하야今日의 享有된自由를 謳歌하고잇다。이러케하야『咀呪할만한壓制』로부터 『解』放된 作家와批評家와詩人은 아무것에도 拘束되지안는 所謂『自由人』이되어 일직이 그들이 輕蔑하고 침밧고 또한 抵抗의對象으로 삼엇든『文壇』이란 市民的槪念미테 自身을 從屬시킴에이르다。喪失된 自由奪還을爲하야 그들이展開한 聖戰은 거룩한『文壇人』의名譽의 獲得에依하야 圖圓을지을려고하는것이다。

그러나 作家나或은 知識人이 集團性의속에서 自己表現을 發見할려고한것은 白鐵氏等에依하야 誤解된는것과가티 知識人自身이 解決하여야할問題를 허되히 남에게依托한것이아니라 그들이 自己自身의自滅을 認識하고 이自滅로부터 救出되는길을 集團性에의從屬속에서 發見한것에 지나지안는다。知識人小市民이 自身의問題를 完全히解決하야 自滅을防禦하는길은 옛날에나지금에나 이集團性의 가운데서 自身을 살리는 方途以外에는 잇슬수 업섯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集團性으로부터 解放되어 새로히獲得하엿다고하는 이른바『自由』라는것이 『結』局『文壇』에의從屬을 가르침에 不過하고 自己 쩌—나리즘과出版資本에의 從屬에 지나지안는것을 指摘하면 問題의解明은 스스로明白할것이다。

이러한 市民的集團槪念인『文壇』과 出版資本의 미테서『自由』를 享樂하는作家와 批評家들이 그의『自由』로운 市民生活의속에서 制作하는文學에는 그러므로 統一된 方向이란것이 업서지고 思想文化의領域에는 錯雜한 個人的傾向의亂調가 特徵的으로되엇다。勿論 이러한 統一된方向의拋棄와 個人的傾向의 亂調狀態가 作家와詩人의 藝術的獨創性과 無緣인것은 이곳에서 注意를 喚起하여야할 問題일것이다。文學은 各個人에依하야 獨創的인것으로 되어야하고 作家는 그의創造的實踐속에서 他人의追隨를不許하는 固有의性格을具備함에이르러야한다는것은 決코 思想의 個別的인分裂과、作家가 離脫하는것을 合理化하는 아름다운資料로는 될수업기때문이다 (續)

延專主催 全鮮學生콩쿨

市內延禧專門學校에서 主催하는 全朝鮮男女中等學校懸賞音樂大會는 오는六月十九日市內府民館에서 開催한다는바指定曲目은如左하다고한다

1、피아노『왈스』作品六十五番 쇼팡 作
2、바이올린『마드리갈』 시모네타作
3、女聲獨唱『들장미』 슈베르트作
4、男聲獨唱『들장미』 베르너作

漢詩募集
題 落花
押 春
(限六月五日)

香山紀行 (五)
鄭飛石

佛影庵

靑山에日暮하니 萬籟가俱寂한데 法堂아페 杜鵑花는 누구를마즈려고 반기우서피엿는고? 眞紅으로萬粧한佳花 한바탕 흐드러저 秀容을자랑하나 이佛影庵을지나는이 白雲과老僧뿐인줄 너도 임이짐작하리니 深山에 절로피엿다 절로스러지는 杜鵑花야말로 世事는琴三尺이요 生涯는酒一盃(翁大升)의 道理를 스스로말해주고 잇는듯하다 華容이美人草를凌駕하되 俗世에뜻을두지안코 春來自發 春去自落하는氣慨가 이浮雲과더부러 好一對일까하노라

佛影庵—아!조흔이름이로구나! 世上事는 一片浮雲이라는것이 佛道의 眞理일진댄 부처님도 亦是 一片浮雲이아닐까?

아니 모든것의 實在와 實相까지를 疑心하는것이 佛敎라면 佛敎自體부터가 한갓그림자가아닐까? 아마도 佛影庵이란 這間의思惟에서 나온이름일지니 진실로 그이름아름답고 귀여웁구나! 生이 꿈이요 死가 꿈이요 思惟하는것이 또한 꿈일진댄 눈아페 보이는것도 꿈이닐수 업스니 저杜鵑花는 꿈속에서 꿈을꾸는것이 아닐까? 오꿈을 辯論하려는 佛道도 또한꿈이로다 꿈일진채로 꿈에서꿈을經營하는것이 宇宙의本意아닐까하노라

法堂前엔 杜鵑花欲燃인데마주편山峰에는 白雲이 더펏스니여기를일러 別有天地라 할손가 造化翁의技術도 여기에이르러 또한번 佳境이로다 다시앞길을 促하자니 樹木사이에香花滿開한것잇서 花片한두닙微風에 飄落하니 어데서새소리도 들릴려하여 李華의『芳樹無人花自落 春山一路鳥空啼』란詩를외이며 새소리에 귀를기우렷스나 벌서해는 저므러 오래엿다

普潤庵에다다르니 黃昏지튼法悅에서 七十老僧이 合掌하고우리를 沈默으로 迎接한다말하면 鐃鈸하다니 桃李不言下自蹊라、緘口無言 그더욱거룩하다 灰色黃昏에부처、法堂아페 端正히서서 우리를내려보고 잇는그는 정말사람이든가? 或은 釋迦의化身이아니든가? 案內者에依하면、이老人은 今年六十九歲로 二十餘歲에 이普潤庵에와서 오늘까지 혼자 修道를하고 잇다하니、무엇때문에 弱冠에 世上을등지고、山中으로차저왓는지 무러볼엄두는일이나、想像만하여도、가슴 서늘하구나! 因果캐여 果를 論할배아니나、한뜻으로서 七十平生을 거러왓다는것이 못내거룩하도다

우리는 이 道明大師에게뭇고시픈만흔懷疑를 가지고잇으나 그를對하매、아는것이 또한懷疑요、모르는것이 또한懷疑인만큼 하지도안하엿다 沈默으로맛고、沈默으로 보내려하니、그를두고오는 가슴에 如何히 沈默이 無言이요 오늘밤 그의꿈이무엇일까 무척 궁금하구나! 普潤庵을 떠낫건만 道明大師의樣姿는 腦裡에서 사라지지안코니 이제는 그가 生佛이아니든가 或은 벙어리가 아니든가도 생각히여진다 喜怒哀樂을떠나 法悅에감긴다는 無我境이란 진실로 이老僧을 두고 이름이 아닐까? 아무리 回想하여도 老僧의얼굴에서 感情을 볼 생각은 나지안호니 그의 胸裡에는 오직白雲만이 오락 가락 하리로다 旅館에도라오니 八時四十分 上院庵까지 다녀온것이너무나 송송하여 한낫 꿈갓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關員들의 氣分은明快해젓다 法王台까지 오르지못한것은 千秋의 遺憾이다

翌日은 다섯時에 起床快晴。모든들 空氣와안개를 마시며 洗面具를들고 시냇가으로나가다

시내!참 아름답구나! 아롱진꿈을품고 물은어데로가며무엇을 속삭이는고? 물도조하려니와 돌도 하마귀엽다

아!이江山은絕勝이로다!빼여난景槪를 독차지한것이 이江山이로다

이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낫을까?구비 구비 감도라가는길이 몃千里이드냐?

우리는 이自然의 洗手台에서 더럽힌때를씻고 더러힌몸을 깨끗이하며 오히려 마음까지 씻치못함을 뉘우처드니 오!어느덧 시처젓슬까 白鷗의날개가티 가벼워지는 내마음이여!

이시내야말로 萬年洗手溪요 萬年沐浴湯이요 萬年洗心洞이 아니엿든가?

午前七時 妙香山을떠나다

이仙境을두고 떠나야만할몸이 안타깝고 야속하구나!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의노래를 부르며 다시 이山으로 歸依할지모르는世上이라 떠나가되 아주 가는것갓지안음은 이정녕 妙香山이나를 慈悲하는 所致가 아닐가하노라。

漢陽朝의政治家群像 ⑦
湖岩

太平宰相許稠

許稠는 世宗朝賢相으로黃喜와並稱할만큼 推仰을 밧든人物이다。

許稠는 黃喜보다 年下요 또首相이된것도 겨우一個年뿐이니 廿四年間 首相이던老大臣黃喜에比할배 아니다。

그러나 許稠의業績은 首相되기前에 禮判으로 制度를勝鍊하고 吏判으로 人才를擢用함에 잇섯다。太祖以來 百事가草創에 高麗制度를 그대로承襲하다가 世宗에이르러 비로소李朝制度가完備함을 보게된바 이는許稠의힘에 依賴함이 만허섯거니와 그가人才를 銓衡함에 잇서서는 才能보다도 德義를 標準하야 前朝新朝를 莫論하고 名節잇는 人物과 그後裔에서取함이 常例이엿섯다。

政治家로서의 許稠는 언제나 謹愼한態度를 가저一官을 補缺할때면 반드시 그人을 精擇하야 다시評論을 더하고 그리하야 衆議가一致된 然後에야 비로소 任命하엿다하며 資格者일진대 비록親戚이라도 登用함에 諱하지 아니햇스므로 吹毛覓疵하는이는 이로써 口實을삼으일까지 잇섯다한다。

許稠는 國情民度를 잘斟酌하고 物態人心을 잘理解하엿스니 그는制度를 磨鍊함에 當하야 決코 人情에 버서나는일은 하지아니하엿다。이를테면 當時一部에서 主倡하던 官妓廢止論에 反對함과如함이 그一例이다。

그는廢娼하면 弊端이 良家에 미칠터인즉 官妓를 不可廢라고 하엿다。이얼마나 社會裏面의事情에 精通한 實際家의 말인가。

許稠는 黃喜의寬厚沈重한 風度가 잇슴에 對하야 綿密精詳한 資質이 잇서서 이두분이 相依相補하야 世宗朝의 文治를 빗나게 하엿다 許稠는 黃喜보다 十三年을 압서서 七十一歲에 먼저卒逝하엿는데 卒逝할때도 아무遺言이 업시太平世에 낫다가 太平世에 죽으니 무슨餘恨잇스랴 하고 微笑하면서 最後呼吸을 하엿다고한다。

慕華館—龍頭里 (4)
朴泰遠

그러케 나사는 洞里에 不平과 不滿을 가지고 잇는것은 勿論 나 한사람뿐이아니다。안해도 그러하엿고 내딸도 그러하엿고— 내딸은 이제겨우 生後滿一年하고 五個月。到底히 그러한것에 關하여意見을 陳述할재주를 못 가진것이나 구두를 신겨주면제법 잘도라다니는 그를 들으로좋고 또 大門밧근·비탈이 지고層階가 잇고그래 할멈 잡등이에서 나려노하 주지는 안코 또 그의日課로나제 두어번 고요히 잘들려면 압뒤ㅅ집에서 격금내기로 무슨『나미다노 와다리도리』니『아나다또 요베바』구나 요사이는길건너집 젊은이가『아메가는저女子 압니가 빠젓네』라나무어라나 하는것을 求하여다노코 어떤때는 十餘番式도 連續的으로 틀고는 그것에 마추어 決코 듯는이에게 快感을 주지안는 목소리를 노피여 노래를 불럿스므로 아무리天性이 착하고 또 유순한 내딸로서도 그마음에 不平이 업슬것이랴!……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洞里로 移舍온것에 對하여 不滿을 품엇든것은 우리를따라 門안서 이곳으로 나오지 안흐면 안되엇든 할멈이다。

그는 元來 내 妻家에서 부리든 사람으로 春川서 서울오지는 고작 四年이나 그밧게 안된다。別로 들어 말할 長點은 업섯스나、무엇보다도 우리로서는 別로 그를 내여보낼다거나 그러할 意思는 업섯다。

『내가 [illegible]이를 그중 귀여허한다면、그건 거짓말이죠。그중 귀여허진 아무래두 내손주 桂玉이구、[illegible]인 둘재죠。』

그는 곳잘 그러한 말을 하엿고、우리도 그것은 當然한일일께라고、何如튼 제손주 바루 다음으로 우리딸을 사랑해준다는것이 우리 夫妻로서는 感激할 일이엿다。

그러나 그가 自己의 가장 사랑하는 손주를 보기 爲하여 자주 집을 나가는데는 딱 질색이다。이리로 나온 當初에는 열흘에 한번式、그것도 點心을 차려노코 틈이나케 갓다가 저녁前에는 도라오고 하엿스나 어느틈엔가 그度數가 자저저서 여드레만큼도 가고 닷세만큼도가고 또 아침만해먹고 가서는 저녁後에야 오기도 하고 저녁後에잠깐 이틀만이 잇서 다녀오겟다든사람이 어든날해질臨時에야 도라오기도 하엿다

『桂玉이가 배탈이 나서 뒤집어 업는군요』

『집이 팔려 새루房을 求헐어 대니느라 느젓죠』

그러한것은 조하도、

『빨래가 글세 이러케 밀럿군요。그래 그걸 좀 빨어주구 오느라……』

라든지 그러한 말에는 그동안 內外가 아이와 씨름하느라 飯饌가가로 通帳을 들고 나가느라 또아궁지마다군불을 집히느라 한참부산하엿든 우리로서 決코 듯기조치는안헛다。

그는 그러한 우리의 氣色을 무한쩍게 살피며 그때마다 으레히 한마디式은

『아유、엔간이 멀어야지 걸어서 꼭 세時間는걸리는걸』

하고 그러한 말을 하엿다。

그의 큰아들은 東大門밧게『龍머리』에서산다。세時間式은 안걸리겟지만 제법 먼距離임에는 틀림업다。우리는 몃번인가 좀 일즉언이 다녀오라고 電車갑을 들려보냈스나 그는 決코 한分의 돈도 그러케쓸 어들지는 안헛나。砂糖이라든 그런것을 하나 사고、二三錢 남는돈으로 손주 먹으라 菓子를 사고、그래『봐—간』서『龍머리』까지를 꼭 걸어서 來往하엿다。그리고 때때 생각난듯이

『東大門밧게두 새집 제노케 만튼데。게가 예보나두 살긴 實狀 조초。』

그러한 말을 하군 하엿나

學生作品

季節의感覺 (四)
延專 李大均

今日의 都市는 一面에서는華麗한 科學의 産物을 生産하는 裏面에서는 暗黑의 産物을 過剩造出한다。文明의 作亂文化의運動은 農村을떠나 都會를焦點으로하야 모여든다。참으로都市는 二種의 矛盾된 科學現象을 如實히 보여준다。都市의구석구석에서는 明日의 文明을세우기爲하야 캄캄한 地下의坑道를 파고잇다。

鐘路의 巨大한『삘딩』아페는힘업시 누어잇는거지。그들은 서울아가씨들의 욕을 밥덩이代身하야 바드면서 그날그날延命하는 말할수업는 人間들이다。實로 人間의 最下層이다 電車停留場마다 盛裝의 有閑매담 紳士、淑女들에게 한푼을 어드려고 人間이 所有한 哀願을 다하는 거지가 꺼부러진 나무처럼 서잇다。

그들은 언제한번딴사람에게 厚待를 바더보지못하는 人間의形狀을하고 人間이아닌—淑女들이 부르는것과가티—무리들이다 그들에게는 明日의 希望도업고 다만 그날을 먹고살면 그만이다。그들의 生의 全體는 服從뿐이다。뼈만남은 가슴파이가죽만 달라부튼 배와 등、—껍거진 막대와가튼 어깨와 팔—기름에 튀긴 생선처럼 부푸러진 허벅지와 정강이—가리울곳을 가리우지 못한 사내의 엉덩이와 女人의 사타구니—아얼마나 醜惡한 畫面이냐、그러나、紳士淑女들은 自己들의 虛榮의 消費에는 千萬金을 꺼림업시 버릴지라도 이 거지群에게 한푼을 던지는이는 열에한두사람뿐이다。淑女들은 보기실타고 멀리 避한다。外面수할래도 그거지때문에 때때로그들의 입에서 나오는다。이것이 現代人間들의心情의 動態나。이러케 世上은살쌀하여가고 世上은 늙어간다。工場의『싸이렌』소리가들때마친 工場商店에서 터저나오는 蒼白한 少年少女들의 勞働에 지친 얼굴들이 겨르로 힘업시 나다。나어린 社會의 犧牲者들이다。그들은 거리의 商品을내보내는 商品들이다。

이거리는 다만 雜音의 亂線이 이모퉁이저모퉁이에서 삐처나오는 陰鬱한 文明의 地域이다 夢游病者들이 亂舞하는 一種의 變態的都市다 이거리의心臟에는 暗黑에서 光明을 찻는群衆의 沈默의 悲劇이 間歇的으로 이러나고잇다 이거리는最大級의 反目과沈痛한 嫉視와恐怖와 戰慄을 품은채 한거름、두거름나가고잇다。이것이 衝突을 豫言하는 거리의 行進曲이다。이華麗한 文明의 外皮속에 파무친 모든惡德과 殘忍을 顯微鏡으로드려다본다면 누구던지 都市文明에 對하야 戰慄驚愕할것이다。

世紀의 人間心理는 極度의狂亂狀態에빠저 꿈과 狂亂의 世界를 追究하고 잇다 그네들의 意識은 漸次 脫線되어가고 社會를 冷笑하는사람도적고 現實을 無視하고否定하라는것도아니고 그러타고 그속에 뛰여드러가서 두팔을것고 指向을 돌리려는 이도업는 支離滅裂한 人間心理가 서울의心臟에 흐르고 잇다。이것이 서울 都市의 哲學이요 痲痺的 生命의 流轉이다

서울!來日의서울 來來의서울을 네가 明日에는 어떠한化粧을하고나타날른지는 모르나 오늘네가걸치고잇는 衣服은 醜惡하고 더럽다 너는다만均衡을 일허버리고 비틀비틀하고잇다。네의거름거리는 매우 疲困하며 네의 呼吸은 매우 急하다。너는다만 未知의世界로 너의 힘업는 거름을 옴기고잇다

永遠한 悲劇의 都市—이 한기픈밤의서울도 점점 느저간다 살쩐 街路樹의가지가지엔 꿈을 幻滅의哀愁가 떠돌으고잇다

都會의밤은 [illegible] 못하고서 기떠만간다。[illegible]도고요한 꿈에 잠기고 街路樹의[illegible]만이『여자』이끌려가는 어지러운 近代文明을 嘲笑하는듯한沈默을 지키고 잇다。

서울— 文明의代辨者 文化의集散地、네게부친이름은 都市나의 이름은 靑春이다。네가 늙어감을따라 이靑春도 시드러간다、너와나는 兩位一體 오!기픈밤의서울— 너는 어데로가는가。나는 네가슴에 귀를기우리고서잇다。(完)—

『밤의悲歌』 —詩—
延專 金鎬在

낫보다 거므남은 悲愁처럼 무
서웁수도 잇나。
낫보다 고요한밤은 孤兒처럼
외로웁수도 잇나。
밤을 우는 侃千鳥의무리
밤을 집기는 侃千鳥의무리
너는 달을보내 울엇더라。
너는 별을보내 재워더라。
너의 흘리는 피는 거머
너의 풍기는 香氣도 거머
소리업는 너는 부르지저 목
차디찬 너는 熱을 숨도리채
식혀더냐。
고요한 너는 미치다미치다 지
치엿더냐。
거므 너는 太陽을바쉬 품에
잠구엇더냐。
밤노래 밤노래는 氣厭처럼 흐
르고。
使者、使者는 가슴에손얹진 少
女를더등고 밤은밤은 무거워
움중한 다리로다
밤은밤은 가벼히 西域으로 旅
行한다。
시방 조령이들이 소곤거리더
니
이밤을 자는듯차저 두다리려

밤은 밤새도록 겨누고 나려오는구나
밤은 밤새도록 부르짓는다。
밤은 밤새도록 노래부른다。
밤은 밤새도록 춤추운다。
밤은 밤새도록 더듬는다。
밤은 밤새도록 싸운다。
밤은 밤새도록 운다。
밤은 밤새도록 잔다。
밤은밤은 밤새밤새 戀愛한다
그 부르지즘은 북쪽으로보내
고 그노래는 하늘로 올리고
고 춤은 남쪽으로 보내고
그 어든건 품에 지니이고
그 痛으피는 따에 부리이고
그 눈물은 동쪽물에 따우고
그 잠은 서쪽으로 보내면
그 戀愛는 두고두고 어찌
려는고?
너의 마음이 너무크어。
너의 뜻이 너무고아。
너의 꿈이 너무술펴。
너의 달이 너무차아。
너의 별이 너무잘아。
해도 너는 내맘。
너는 나。
나는 너。
오오 悲哀의 輪廻여!
꿋업시 흘려보세。
—7·32·17—

天才發揚의聖戰!

第三回 全朝鮮男女懸賞音樂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 DFR WANDERLE(放浪者)＝슈벨트
【피아노】 IMPROMPTU(即興曲)NO,4(作品九〇)＝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協奏曲)NO,6 (B FLAT)第一樂章＝로-데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庶務部로交附함 (但한번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 洪蘭坡 朴慶浩 玄濟明 桂貞植 金元福 鄭勳模 朴泰俊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新刊紹介

▲朝鮮詩歌史綱 趙潤濟氏著(內容)第一章 朝鮮詩歌의發生時代 第二章 鄕歌時代 第三章 詩歌의漢譯時代 第四章 衛樂淸算時代 第五章 歌辭誦詠時代 第六章 時調文學發揮時代 第七章 詩歌撰集時代 第八章 唱曲旺盛時代等 發賣所 京城府齋洞町一一二番地 東光堂書店 振替京城一六一二二番 定價四圓

▲한글의바른길 崔鉉培氏著(內容)한글運動의由來、文字와文化、한글運動의本質과그發展새방침의諸問題의解決、조선말본의갈말(術語)問題、한글難解의心理分析、朝鮮文學、한글날에對하야 附錄朴勝彬님의記寫法은果然平易한것인지等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六十錢 送料六錢 販賣所 京城府齋洞町一一二 東光堂書店

▲野火 六月號 發行所京城府社稷町三一一의七野火社 振替京城三二三七番 定價十錢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下六二十日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天名畫特選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二時二十分(續映)、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 階下十錢)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原作윌리암A마크가이버氏 監督에드와드·럿렐氏 正喜劇 自殺合戰 主演(마리온니콘스氏)

콜럼비아社特作全發聲日本版 原作살-스로이알氏 監督고돈、베넷드氏 西部大活劇 喧嘩渡世 主演(제네비이브-드氏)

右太프로特作品 監督 中川信夫氏 時代活劇 箱根八里 主演(市川右太衛門氏 佐久間妙子)

東日大每뉴-스 多數上映

團成社

◇코럼비아社二百萬弗超雄篇 名畫 (로바-드·리스킨脚色 프랑크·캐푸라監督) 卄六日夜間부터(七時) 一般有料試寫會七〇錢公開 卄七日부터特別大興行 每日十時半一時半六時半

◇世界의名篇 일어진地平線 어린이、어른、男子나、女子、누가본대도充分히滿足할수잇는 英文壇의雄匠제임스·힐톤原作 로날드·콜맨主演

◇世界의마스코트 샤리템플 템플의微笑 아마템플作品中에선그중노래와춤과喜劇이만흔傑作이겟죠 (一次週封切公開) 그러는人生、노래하자유쾌하게

優美館 電光三九五 舊鐘町

朝鮮名畫大會 五月二十九日부터同三日間『絕對無延期』 漢陽映畫社超特作 朝鮮語全發聲 아리랑第三篇 監督 春史羅雲奎 出演 羅雲奎、南宮仙、玄芳蘭、申一仙、申相銀、外엑스트라

京城撮影所超特作 朝鮮語全發聲 春香傳 監督 李銘牛、撮影李明雨 出演 朴齊行、盧載信、李鍾哲、文藝峰、金蓮實、林雲鶴

漫畫·뉴-스

大豫告 平原兒進め龍騎兵發聲 洪吉童前篇風雲の歡羅 新しき士乞期待!!

光武劇場 往十里町

五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特別公演 白熱的歡呼裡에續演되는天然劇藝術團第一週大公演 ▲藝題每夜交換上演▼ 天然劇團秘藏劇本! ▲佛面鬼作……

悲劇 울어라音全아 全二幕
史話 百濟의魂 全三幕
悲劇 울며웃는사람들 全二幕
悲劇 溫泉場 全二幕
間幕 스켓치·넌센스·天然모던舞踊·獨唱·合唱·民謠·울라스엔스

▲天然劇團出演男女無順 李松山·康虎鎭·李土月·柳白雲 李東春·卞向淑·崔一石·張寅權 金貂洪·金昭龍·朴雲海·尹尚台 宋春波·金南反·金蓮洪·李仁西 女子部 金메리·白玉鄕·金明子·黃愛蘭 崔蘭姬·南貞子·朴玉子·李順南 李貞淑·黃石出·其他多數出演 主幹 金龍俊

今番當京城公演을마치고六月부터北鮮地方으로巡廻하게되엿습니다

試寫評 樂聖베ー토ー벤

P・K

이映畵는 音樂傳記映畵로서는 지금까지의 그것中에 最高의地位를 주어도 조흘것이다 元來베ー토벤의 生涯가 多分의劇的要素를 가젓스며 여기에 토ー키의技術上의 진품으로 하야금 그의 作曲全部를收錄시킨것ー 그리고 畵面의 아름다운데잇서서는 아마 映畵史上에 特記하야도조흘만치 鑑賞者로하야금 陶醉境에 모라너헛다 아베르・간스의 로맨틱한手法은 『鐵路의白薔薇』에서 보혀주던 迫力을 規模가크게보여주엇다

거기에다가 아리・보ー르의 演劇的인演技가 차라리 이映畵에 對해서는 그것이效果的이아니엿던가한다 演劇俳優의表情이 畵面에옮겨질때는 이상한 느낌을 가저오기쉬운데 이映畵에서는 映畵自體의가진바 드라마틱한要素에 그것이合致되여잇섯다

듀리에트로 扮裝한 짜니ー・올트와 데레ー스의 아니ー・듀ー고는 各各그性格을잘나타내여주엇다 이映畵에한가지 험을들수잇다면 몬타쥬의過分ーー과進行의따분한것을 들겟스나 몬타쥬ー는 佛蘭西映畵의特徵이라고보아서 눌러보아도조흘것이다 (六月一日부터 明治座에서上映)

자라라!映畵朝鮮

群星競耀・크랭크는도는다

高潮된映畵製作熱

"燕歌"外六七篇準備着着進行

映畵史上初有의活況

今年에 드러서 朝鮮映畵界는 갑작이 前에보지못한 活況을 呈하고 五夢女 人生航路 純情海峽나 그네等等이 續續封切되엿스며 압흐로 製作開始도는準備中에 잇는것이 八九篇에亘하고잇다。

安夕影氏의 燕歌를 비롯하야 金幽影 朴基采氏等이 暗暗裡에 活動中이며 純情海峽의 申敬均氏의 第二回作이準備가 完了되고 나그네의李圭煥氏도 새作品의準備가끗낫다하며 그外에 無名新進들의 몃개作品이 製作進行中에잇다 이와同時에 故沈薰氏의『常綠樹』를 映畵化시키라는運動이 沈氏를中心삼고 進行中에잇다하니 朝鮮映畵가 이러케活況을 띄게된것은 朝鮮映畵史가생겨난뒤 처음보는 반가운現狀이라하야 期待가크다

짱・콕토ー "詩人의血" 自作映畵

佛蘭西의詩人 짱・콕토ー는 數年前부터 自己손으로 씨나리오를쓰고 自己손으로 메가폰을잡아서 映畵를 製作하얏다 이事實은 佛蘭西映畵界나 文壇에서 가장 物議를 일으키고잇섯는데 映畵의題目『詩人의피』라고하야 製作을 맛치자 文壇人들만이 모여서 試寫를하고 그後에는 全然 公開치안엇다 그러던것이 이唯一한 푸린트가 最近 獨逸에서 發見되엿스므로 全世界에 配給되리라하며 日本에서는 토비스社의 손에 依하야 輸入되기로되엿다

××五男妹映畵×× ××FOX와RKO×× ××兩作品同時入荷××

디온느五男妹의 第二回映畵『五男妹王國』이란作品이 廿世紀폭스社의 日本支社에요지음入荷되엿다。그런데이와때를가치하야 RKO支社에도 뉴ー스映畵『五男妹天國』이란 作品이入荷하엿는데 이것은RKO파티ー社가 獨占撮影한 例의 五男妹아이의 起床에서 부러 就寢까지의一日生活記錄을 寫한것이다。이前에도 RKO社의『奇蹟十五男妹』와폭스社의『五男妹誕生』이 가치入荷하야 物議를 이르킨일이잇섯다。

이것은 카나다政府로부터前記二社에 各各뉴ー스映畵劇映畵製作의 獨占權을준까닭에兩社가 다가티不平을 말할수도업고이를도『王國』과『天國』이對立되여 興行競爭을 하게되엿다

佛映畵의新傾向

藝術味置重을抛棄코 大衆趣味迎合에轉換

在來로 佛蘭西映畵는 藝術味가 豐富한것을 主要視하게되엿는데 요사이는 이것이 漸漸 方向을 돌려서『깽』映畵等의 아메리카的要素를가지라고한다。最近의製作狀況을 살펴보면 부라그의 奇怪傳說에 取材한 듀비비에의『巨人고ー렘』『페페・르・모코』(깽映畵) 모ー리스・토ー르느ー르의『港口의掠奪者』歐洲大戰에 取材한파브스트의 스파이映畵『떠러ー뺀』等으로서 듀비비에의『페페・르・모코』는 佛蘭西封切에서 놀라운人氣를 끌엇다。

이傾向은 佛蘭西映畵의質的低下라고 보여지고잇스나 社交外 市民生活等의 漏狹한生活에 잇던佛蘭西映畵에 對하야 한개의 反逆일지도몰라서將來가 至極히 注目된다。

現在의 佛蘭西映畵界를 살펴보면 依然 듀비비에、르노아ー르等의 精銳監督이 勢力을가지고잇다 그러나 新人의 進出도 놀라올만치 顯著하야 크레ー르、페ー레의 助監督으로잇던 마르셀카르네 佛蘭西第一의 거장이라고 하는 레오니ー드・모기ー等은 先輩를 밀치고놀랍게進出中이다。카르네는 네이트크럽에 取材한『제니ー의집』모기ー는 女學校의寄宿舍에 取材한『어린이』로 떼뷰ー하얏다

女優陣은 名花아나、베라시몬느、시몬 떼니엘、멜르等을 헐리우ー드에 빼앗기고 沈滯狀態에잇스나『沐浴』에서 人氣를끄럿던 마르셀、산타ー르가 홀로氣焰을吐하고『熱風』에主演하얏다 新人스타ー들도登場하야 르나ー르監督의『地下室』에 出演한名優꾸、갸반과共演 나타ー샤로扮裝한 듀ー아스토ー르는『禁男의집』以來 그演技가 認定되여서 佛蘭西映畵界의重寶로 指目되고잇다

그外에 期待되는 女俳優로는『港口의 掠奪者』에나오지스레ー느、불뉴 소ー느、노로等『선술집』『몬팔나스의밤』以來賣笑婦型의 女優로 有名하며男俳優로는 아리、보ー르、쨘、갸방은 말할것도업고 新人으로는 다르세 부르떼等이 將來가期待되는것이다

(사진은 듀비비에)

博士들의放射線劇 上演

東京의 科學펜俱樂部에서는創立一周年을 마지하야 科學과藝術의意義를 더욱强調하기爲하야 오는六月二、三日午後六時부터 飛行會館에서『科學劇과講演의밤』을 開催하기로되엿다。科學劇『放射線』은 原作 演出 裝置 配役에이르기까지 全部가錚錚한 博士들로만 되여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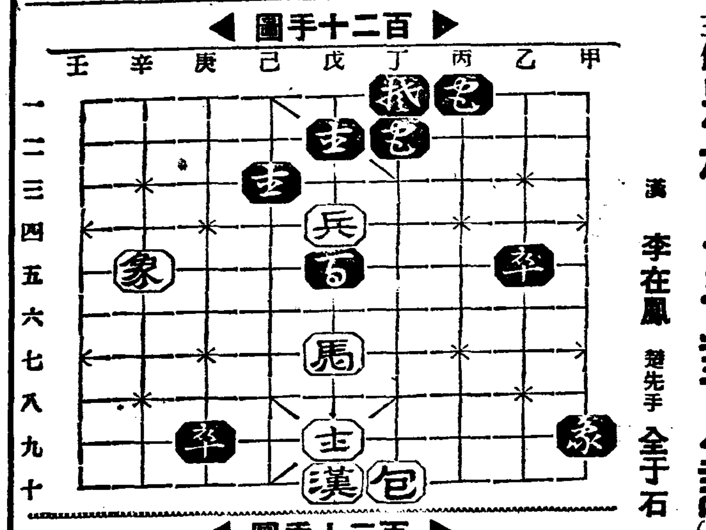
演出에는 木木高太郞이란變名으로 慶應大學敎授 林 博士가 마터보고 裝置에는 最新式工業用×光線도 裝置하기로되여서 名實共의科學劇이다그와同時에루나ー르의『紅焰』도上演하기로되엿다。

더욱 科學펜俱樂部는 斯界의 進步的學者들이 모여잇는만큼 一般의期待이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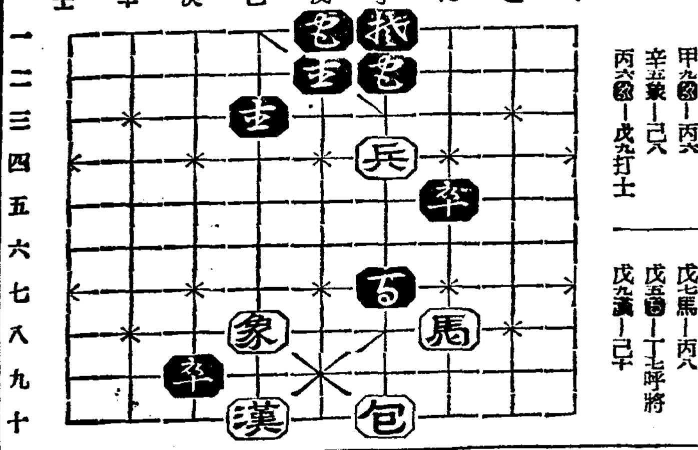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三十)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百二十手圖▶



◀百三十手圖▶



乙五卒ー丙五 戊四兵ー丁四 甲九包ー丙九 辛五象ー己八 丙六包ー戊九打士

戊十漢ー戊九打象 丙一包ー戊一 戊七馬ー丙六 戊四包ー丁七呼將 戊九漢ー己十

活動時代 朝鮮映畵의企業性 (二)

夢駒

朝鮮映畵를 훌륭한産業形態로 보는資本家가 생겨나도조흘때가아닌가?

이것도 朝鮮이기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의企業性에 着眼하는 사람(資本家)이업섯을것이요 다른先進國에서는 이것을 企業中에도 아조훌륭한企業으로알고 여기에巨大한資本이動員되여잇다는事實은 새삼스러운일이아니라 그러나 朝鮮에잇서서는 資本가진사람들도다른産業에對하야는 모조리企業的인見地에서 評價하라고하면서도 映畵製作이란 에는 封建的인 消極을 取하고잇다

그런데 요지음 在來로부터映畵에 關係하던사람들로서 東京方面의 映畵企業家들과 손을잡고 製作한사람이 잇는데 이것은 土着資本을 求之不得하던나머지에 取한窮策일것이나 바다를사이에두고 잇는東京의企業家들은 朝鮮이라는 보지도못하면서 이것의 훌륭한 企業的인것을 살피고 製作을하는데 朝鮮內의 土着資本家들은 웨여기對한 認識을 가지지못하는가?

그리하야 前者『나그네』라는 映畵가興行成績이조와서 요지음여러方面에서 刺戟되여서 이와가튼方法으로 製作할策動을한다는말을 들엇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點으로 보아 朝鮮映畵가 한개라도 더製作된다는데잇서서 반가운 現狀일지는모르나 企業的 見地로보아서 莫大한 損失이 아닐가한다 如何한條件으로 하는지는몰라도 技術만의 賃貸形式에 依하야賃貸料를 支拂하는 것도억울하다는데 版權을 그곳에맛긴다던지 全面的인資本으로빌린다는것은 아무義意를 갓지못하얏스리라고생각한다 차라리 이보담은 朝鮮에로ー카씨스템을가지는것이 有利하지안흘가 여기對하야 筆者의設計한것을 參考로든다면 첫재 토ー키機械一式과 스타디오의 建設은 事實上朝鮮映畵製作에 必要한 程度라면 얼마들지안코도될수잇는것일가한다 토ー키씨스템에 對한費用은 四五萬圓이면 足하고 스타디오建設費로서 敷地價格은 市外의ーー京城과 三四十里밧게라도 相關업다ー할한땅을사면 二萬圓程度乃至 三萬圓이면 足하다 이러케 七八萬圓으로 스타디오를 세운다면製作費에잇서서 한개에 萬圓으로 훌륭한것을 製作할수 잇는것이니 남어지는 製作費로 五萬圓程度의 資本을가지고 두달만에 一作品을내어 一個年만 繼續한다면 처음作品이市場을 도라드려올때까지 資本은 물수잇스며 이것의 市場도 東京이나 海外를 얼마던지 配給할수 잇는것이다

더욱 近間의 映畵統制로말미아마 朝鮮映畵의 企業的條件은 有利하게 展開되엿스며 市場이 넓어젓다고 볼수잇는것이니 恒常 이市場을 朝鮮이란 局限된地域을 念頭에두지말고 널리살필때 朝鮮映畵라는 商品이 東京이나 海外를가지못한다고 누가 壯談할것인가? 그러므로 여기具體的인方策을 들수는업스나 最少限十五萬圓의資本을 動員시키면 當分間의 形使으로는 훌륭히될수잇는 有利한企業에손을 대일수잇는것이다

라디오

卅一日(月曜)

◇午後六時 兒童과先生의時間 一、이야기 二、朗讀 汽車의發達(讀本第九第七課) 京城女子師範附屬普通學校 一年生 五年生

◇同六時 (大)連續童話劇 海の子供たち (五)テキスト六四頁(第一放送) BKこども會

◇同六時二五分(東) 英語講座(三回一) 澤村寅二郎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電氣化學工業の近狀 京城高工 安東赫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江上에둥둥 二、唱劇調 赤壁歌 誠手 曺弄玉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一、소나티네 D長調 第一番 쇼ー베르트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 몰토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 알레그로、빠ー체作曲 二、아라비아의노래(림스키、코르사코프作曲 크라이슬러編曲)…三、幻想曲…金世炯作曲

◇同九時 古談『모르는四寸누의』 李雲林

一日(火曜)

◇午後〇時〇五分(東) 吹奏樂 未完成交響曲 B短調、슈ー버ー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모데라ー트 第二樂章 안단테、콘모토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岡田國一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滋味잇는科學이야기 養正高普 崔在緯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國語)(京城)ー京城球場으로부터 中繼ー 京城實業野球聯盟春季리ー그戰(但決勝戰이有할時)

◇同六時三〇分 童話劇『어머니의눈물』 指導 朴興珉 童心會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初等國語講座 高橋平八郎

◇同八時 講演 物價騰貴와生活改善 普專敎授 洪性夏

◇同八時三〇分 一、關山戎馬 二、긴아리 三、打鈴 四、寧邊歌 五、開城難逢歌 六、방아打鈴 崔貞子 金秋月

◇同九時 歌詞 一、春眠曲 二、白鷗詞 徐珊瑚珠 金玉葉 大岑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 吹奏樂

◇同六時(東)講演

◇同六時二〇分(大) 唱歌

◇同七時二〇分(東)齊唱

◇同八時二五分(大) 漫才

◇同八時二五分(大) 歌謠曲

◇同八時五〇分(東) 라디오드라마

類似宗教團体解剖

佛法硏究會 關聖敎總本部 正道敎 青林敎 紫霞門굿당

六月特輯号發賣

定價 四十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朝光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住宅地論ーー洪胤植

獨想……玄仁圭
人生의이데알……安浩相
人道……金基錫
思想과肉體……朴致祐

隨筆과評論
휴ー맨이즘의空論……李源朝
隨筆과批評……金管
純情海峽(映畵)……徐光霽

數量과順序……沈亨弼

綠林豪傑太白風……翠雲
世界珍書奇書……又夢人
拳豪玄海男……一記者
故李箱의片貌……朴泰遠
故李箱의追憶……金起林
휴ー맨이즘의發展……金午星

探偵小說 잃어진寶石 第一回 반다인作 故金裕貞譯

米國의勞働運動……韓普容

東洋文學의風流性ーー白鐵

全朝鮮男女專門學生會消息 延專・普專 梨專・梨保 京保・崇專

贅疣問答ーー金石松
손곱질ーー張德祚
線陰下ーー白信愛
여름祭物ーー李秉珏

五月斷想

聲樂家 李寅善氏心境打診ーー一記者

米價의趨勢 金翰容

名家後嗣命億兼氏家庭

世界偉人・文豪의出世로맨스
文豪버ー너드쇼우의出世苦行
發明王에듸슨의苦悶史
文豪고ー리키의哀史
聖雄간듸의眞理哲學
自動車王포ー드의出世記
國民政府의總帥蔣介石

畫報
各界硏究室探訪 李甲洙氏 黃義敦氏 李德鳳氏 李榮俊氏 孫晋泰氏……
六月映畵陣
바다의竜魂……
浮沈하는사랑……
戀人의日記……
港口의掠奪者……

三行常識室

人物消息

名寡婦申氏 車相瓚

野談 긴다리軍官ーー申鼎言

六月創作特輯
未完成ーー朱耀燮
戲曲 길ーー金鎭壽
産母ーー李箕永
長篇小說 川邊風景ーー朴泰遠
石榴ーー李光洙

懸賞當選者發表

思想保護觀察令 李鍾模

고ー리키ー一週忌에際하야ーー咸大勳
放浪人으로의고ー리키ーー韓雪野
고ー리키一年祭ーー李箕永
一九〇五年前의고ー리키ーー林和
偉大한世界的文豪ーー尹基鼎
고ー리키ー一週忌ーー金南天

六月의詩歌
雪晴……曺雲
밤길……林和
憧憬……金珖燮
낫선거리……盧天命
내마음은……金東鳴
命은무ー스……林學洙

白白敎事件正体暴露記

金大觀

白白敎는 只今까지도 그 正體를 알수업든 果然그들은 어떤手段으로 어떠케愚民들을 飜弄하엿나? 이記事는新聞에도 記載되지안흔것만골라쓴 大秘密記事이다

中部版

全朝鮮弓術會 長湍서도盛況

【長湍】장단읍내 번영회주최와 본보장단지국후원으로 지난이십사일부터 이십육일까지 전조선궁술대회와 척사(擲柶) 씨름대회를 만여관중이 운집한가운데 번영회장에서 무사히 종료하얏는데 궁술대회입상자는 다음과갓다한다
二等朴成彬 二等張[illegible]外一人 三等金仁煥外二人 四等李[illegible] 外三人 五等崔錫元外四人

第四回 畿湖蹴球大會

永登浦體育會 主催
本社永登浦支局 後援
自六月十九日—三日間

【永登浦】영등포체육회주최와 본보영등포지국후원의 제사회기호축구대회(畿湖蹴球大會)는 해마다 년중행사로 조선체육계에 만흔공헌을하고잇는터로 해마다 경성을중심으로 기호일대에 산재한단체가 참가하야 대성황리에 원만히진행되는것으로 목하주최자측과 후원측에서는 그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그런대대회기일은 오는 륙월십구일부터 삼일간이라고한다

회대회를 개최한다는데 각회이외에 추첨과 미기 연주의 여흥도 만흥으로 벌서부터 인끼가 집중하야 사방에서 참가자가 답지하리라는데 대회의임원과 규정등은 다음과갓다한다
會長—李敞重 副會長—朴容泰 總務—金順之 朴元用 施賞係—[illegible] 林明根外十人 審判係—李蕃萬 禹秉信外五人 警備係—尹[illegible] 金[illegible]有燮外七人 衛生係—李玕林 尹始炳 義捐係—高秉律 任錫柱外五人 庶務係—李淳雨 劉龍福外五人 宣傳係—李根洪 金丁敏外二人 案內係—李演鉉 韓永必

漣川支局後援의 脚戱鞦韆大會 端午日朔寧에서

【漣川】경기도련천군삭녕(朔寧)시민주최와 본보련천지국후원으로 오는 음력오월오일부터 삼일간 동군삭녕면 삭녕리에서각
◇賞品 (가)脚戱部—一等黃牛一頭以下四等까지 (나)鞦韆部—一等高級衣類以下三等까지

仁川發展을可期 滿洲와北中을舞臺 仁川商議渡邊理事視察談

【仁川】만주국의 무진장보고가 계속발견될뿐아니라 북중국의미개지관계로 일본내지 생산품이 공급부족을 늣기고잇서서 각공업계에서는 이에대한 무역을각방으로 연구중이든바 작금에이르러 인천을중심으로하야 대공장이본격적으로 진출하고잇다이와한가지 인천상공회의소 리사도변(渡邊)씨는 진남포(鎭南浦)에서 개최된 전조선 리사회에 참석한후 북중국각방을 시찰한바에의하면 동지대주민은 거개일본제품을 애용하고 잇슬뿐아니라 기후관계로 동지방에는공장설치가 큰문제가 되어잇는만큼 일본상품에 대부분을늣기고잇다이럼으로 이에수용하자면 지리또는 항로관계로 공장지가인천이 가장적합하다하야 근대에 듯기어려운 명랑한"뉴쓰"를전하야주고잇다하다

君子公立普校 學年延長祝賀

【永登浦】시흥군군자면(始興郡君子面)군자공립보통학교(君子公普校)는 사변제로 학년연장을면민전체로 열망하야 자발적으로 그기금을 적립조성하야 군당국에 그급속실현을 간원하엿섯는데능천(能川)시흥군수는 부임이후 제일착사업으로 학교비의궁핍한 재정을보지안코 군자수양리면에 그학년연장의가수속을 완료하얏슴으로 면민들은 동군수의 선정을찬하하는동시에 지난십일오전십일시부터 동교교정에서 이를자축하는의미에서 학년연장 교사증축축하회를 성대히 거행하엿다고한다

臨時線路敷設코저 舊路를破壞切斷 關係住民當局에陳情

【永登浦】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西二面安養里)양지편후두리 창마을등 세부락의 유일한 통로에 철도용 사리채취선로를 새로 부설하는중 수개소의 통로를 파괴절단하여 선로시설공사를 하엿슴으로 일반주민들은 교통의 불편을 늣길뿐외라 목하 농번기로 비료등기타를 운반케되는 우마차등은전연 통행불능의 상태에 잇슴으로 루루 정부조인 전전조(前田組)에 대하야 그스리를 요구하엿든바 전전조에서는 철도국설계대로 시행공사한것이즉 책임은 철도국에잇다고 냉정한태도를 보임으로 수일전 서이면장은 주민을 대표하야 철도국에 그수리를 정식으로 보고제출하엿다고한다

郡民怨聲의的 江華浴湯問題

【江華】기부금허가의 취소문제로 특히 말썽많은바이어니와 작년봄에까지 이를완성한다고 당국에서도 표명하야 왓섯만 작년이지나 금년이반이나 지나갓지만아직것 아모런 소식이업다는바 위생제일을표방하는 당국의 면목이 과연어대잇는가하야 일반주민은 당국에대한 원성이놉퍼지고잇다한다

移秧期迫頭한今日 함부로作權剝奪 一般의物議가沸騰

【蘇萊】부천군 소래면 미산리(富川郡蘇萊面米山里)에서는 이앙시기를 불과십여일압두고 소작쟁의가잇다는데그내용을듯건대 경성모지주의 소유답을 중심으로 김일철(金一喆假名)이라사람이 지주의 소작위임장을 가지고 최일태(崔一台假名)란사람이 수년전부터 지주의관리인에게 소작권을 어더서 이래소작하든것을 자기가 경작하겟다고 면당국과 경찰에까지 호소하게되엿다는데 요사이 이앙기가박두한요사이 소작권쟁탈로 문제를일으키게하는것은 한사람의관계가안니라 장래농가에 큰영향이된다하야 일반은 물의가분분하다고한다

街頭의츄럭盜賊 盜乘後엔顚覆

【洪川】지난이십칠일 오전네시경 강원도홍천군신장대리(新場垈里) 광신상점지점(廣信商店支店)압길거리에 노혀잇는 강원[illegible]소유 강원도두번지[illegible]을 어떤자가 절취하야타고 어키로나되는 동면대화리(大華里) 김연구명에다 처박고 목적을 치못한채 도주한사건이 발생하야 소할주재소에서는 이급보를 밧고 현장에가서 조사중이나 방금 각방으로 범인을엄탐중이라는데 이는반드시 자동차의운전기술이잇는 지능범(智能犯)의 행사로 추측되며 손해는약 이백원가량이라한다

平康管內에서 二重의自殺劇

【平康】지난이십일밤 [illegible]이낫(鎌)으로 배를찔러 자결한 사건은 기보한바어니와 또다시 지난이십구일에 평강읍내 서변리(平康邑內西邊里)一〇八에사는 리치준(李致俊)(*)은 오래전부터 병석에서 신음하고잇든바 자기의병을 비관하엿든지 자식들도아지못하게 자기방에서 일은아침에 목을매여자살하야 버렷다고한다

危險한車中作亂 通學生墜落重傷

【漣川】경성전기학교일학년에 통학하는 련천군군내면현가리강상원(姜祥遠)(*)은 본월이십구일오후칠시경에 경원선오백사호렬차로 집에도라오는중 동모와 작난하다가 가방이차밧게떨려젓슴으로 집으려다가 떨려저서머리에 상처를입고 압니가두개나부러젓다고한다

父子間에告訴! 先塋을파른子息거러 아비가開城署에눈물의呼訴

【開城】부내 남산정(南山町)칠백오번지 서상근(徐相根)(*)이란 로인은 자기둘재아들인 창복(昌福)을 상대로 인장급"문서위조행사 사기편재죄"란 명목을 들어 개성서에 고소를제기하얏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 듯건대 그의 아들창복은 작년삼월하순경 전기부친의 인장을위조하야 장단군진남면 덕산리(長湍郡津南面德山里)오번지에잇는 림야 구백륙십팔정보(町步)를 대금팔십원에 동군 동면 동리십칠번지사는 리소훈(李紹薰)(*)에게 팔어먹은사실이 잇는바 이산으로말하면 전기로인의 십륙대이하의 조상의분묘를 모신산판으로 이것을 다른사람에게 팔어버린다는것은 즉이로인에게 조상의백골을 팔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업서 도무지 세상에 낫을들고 단일수업슬뿐더러 내종에죽어 저세상에가서도 선조를 대할면목이업스니 차라리 내자식한명을 희생시켜 징역을 보내는 한이잇드라도 선조의 산소가잇는 산판만은 기어히찻도록 해달라는것이라한다

盛況을이룬全朝鮮弓術大會 (金村)

坡州初有의盛況 五日間으로會期延長 全朝鮮弓術大會閉幕

【金村】기보금촌번영회(金村繁榮會)주최와 본보금촌지국후원의 씨름과척사회를겸한 전조선궁술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삼일부터 개회하엿는데 대회의성황이 지나치게 예기이상이엿슴으로 부득이 대회기간을 오일간으로 연장하여 지난 이십칠일 파주지방에 잇서서는 실로 미증유의 대성황으로 무사히마치엿다는데 동대회총입장자수는 무려 이만여명에 달하엿다하며 각부문의 우승자씨명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弓術部—一等金鳳煥 二等李河吉 安基福 三等金鍾煥 朴璧五 金仁煥 四等金顯燦 崔昌王 李時榮 李相春 五等張[illegible]厚 徐漢九 印天基 朴仲歡 鄭雲華
▲擲柶部—一等二等崔鳳根 三等崔薪鉉 四等鄭先吉 五等李聖昌 六等崔相天
▲씨름部—一等黃海道金川邑 愼鶴大 二等京畿道高陽 金龍伊 三等同上 李介同 四等 同上 崔加出 五等開城 洪淳興

開城 全朝鮮씨름大會
▲日時 六月十三日午後八時
▲場所 高麗青年會館
◇主催 高麗青年會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漣川 脚戱鞦韆大會
▲時日 陰五月五、六、七日
▲場所 朔寧面朔寧里
◇主催 朔寧市民一同
◇後援 朝鮮日報漣川支局

公普校生慘死 그네서떠러저

【春川】보통학교삼학년아이가그네에서 떠러저죽은 무참한사실이발생되엿다 춘천읍단양정(春川邑丹陽町)에 거주하는 최세천(崔世天)의 외아들허찬(許燦)(*)이란아이는 춘천공보 삼학년생으로 지난이십칠일 해군기념일 오전열한시경가튼반인한영교(韓永敎)(*)와 운동장에잇는 그네를 뛰다가 떠러저서 기절한것을 사무실에떠메다가 눕히고 인공호흡을시겨 겨우 회생하엿스나 경과가 조치못함으로 도립의원에 입원시겻든바점점 경과가 조치못하여저서 드듸여 그날오후아홉시경에 죽어버렷다한다

長篇小說 恭愍王【5】

李光洙 作
金鯨超 畫

이제현의 말을도 듯지아니하고 왕은마침내 편조를 만나기로 결심하엿다.

오월 어느 심히 맑은 날이엇다. 왕은 대궐과 겨장하여잇는 봉선사(奉先寺)에 미행하서서 편조를 만나섯다. 편조를처절대례로 불러들이지아니하심은 고승을 스승으로 존경하심이엇다. 이날 왕은 누른빗 들인모시도포를 입으시고 역시갈은빗의 띄를 띄시고 누런 초립을 쓰섯다. 이를테면 연복으로 미행하신것이다.

봉선사 대법당 동쪽에 왕의 자리를 베풀고 저쪽에 편조의 자리를 베풀엇다. 깨끗이 물뿌리고 쓸어노흔 절마당의 이끼낀곳에는 모란이 피어잇섯다.

편조는 먹물들인 누데기를입고 [illegible] 가사를 메고 목에는 보리자 백팔염주를 걸고 손에는 까만 단주를 들고 역시 회색 눕이 보선을 신고 주장 노승의 선도로 법당에 들어와 먼저 불전에 절하고 다음에 옥좌를 향하야 공손히 합장국궁하엿다. 왕은 옥좌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하야 답례하시고 편조에게 자리를 권하신다. 편조는 세번 사양하다가 정한 자리에 앉는다. 그 동작이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드시 심히 안상하고 놉흔 이의 압에 처음 온 사람 갈지아니하다.

주장 노승과 김원명 기현, 리춘부, 김란등은 왕의 왼 좌우에 옹하고 섯다.

이윽고 십오륙세나 되어슬듯한 어엿본 두 여승이 흰 장삼, 흰 고깔에 다홍 가사를 메고 산수모양 놓은 칠반 운학 아로새긴 천자 찻중에 비취빛나는 차를 나뇌어 한 여승은 상감께 그리고 한 여승은 편조에게 두 손으로 바뜰어 들인다.

불전에 피인 자단향의 연기와 아울러 지리산 작설차의 향기가 방안에 떠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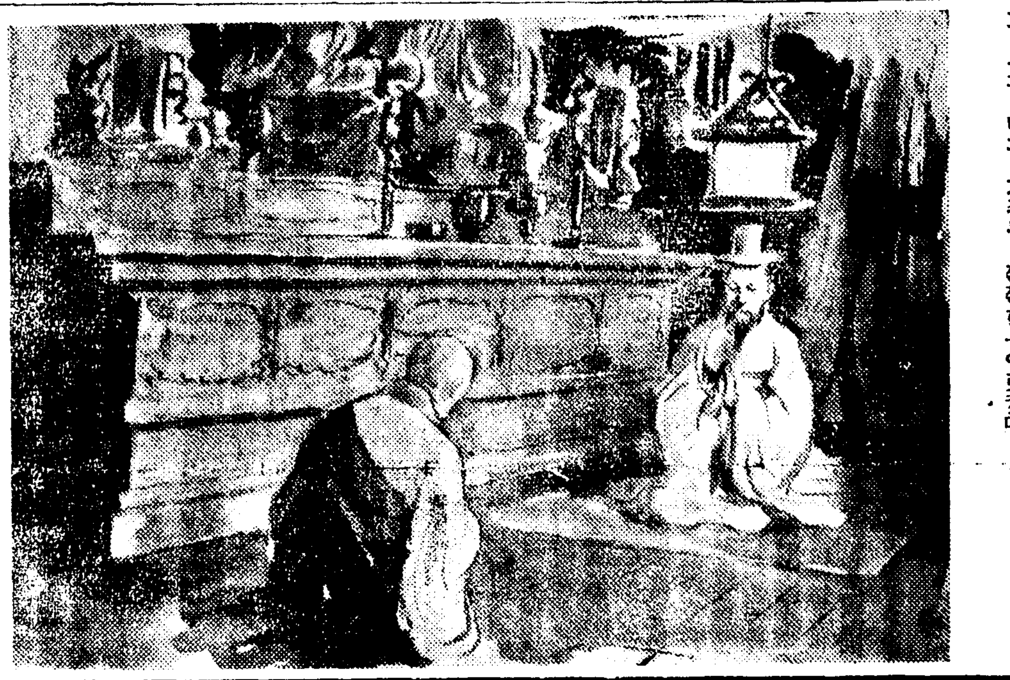
왕은 차를 바뜰어들이는 어린 여승의얼굴이 심히 아름다음을 보섯다.

이 두 여승은 김란이 편조에게 준 두 처녀로서 하나는 바야(般若)라고 이름짓고 하나는 시라(尸羅)라고 이름지엇다 반야나 시라나 다 육바라밀에 하나로서 반야는 지혜란 말이오 시라는 지게—게를 지킨단 말로 편조가 지은 이름이다. 이 두 여승은 편조의 상좌로 편조를 시봉하는 직분을 맛고 잇엇다. 일곱게 자를 들인것이 바야엿다.

바야가 합전에 두 무릎을 꿀고 차를 바듸어 올릴때에 왕은 잠깐 한창하시기를 잇지아니하섯다.

다례가 끗나자 어 꽁식 회견이 잇섯다.

왕은 비록 잠시 대하엿으나 편조의 위의를 사모하엿다. 편조의 그 그림듯한 태도, 엄숙하고도 온화한 거동은 왕의 마음 속에 이상하게 깊은감동을 이르켯다.



이러케 편조를 만나보시고는 왕은 마치 오늘 업어진 인생을 아니 깨트리랴는드시 곳 환궁하시엇다. 왕은 보행으로 석양을 등에 지시고 수창교(壽昌橋)를 건너시엇다. 편조와 봉선사 대중이며 그러히 춘부, 등은 수창교 머리에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왕을 봉송하엿다. 오직 종신 홍륜(洪倫)과 처음으로 편조를 왕께 소개한 김원명(金元命)과 환관 최만생만이 왕을 모시엇다.

수창교를 건너면 바로 연경궁(延慶宮)본대절이다.

왕이 수창교다리를 건널 때쯤해서 마치 이 시각을 기다린드시 봉선사, 광명사(廣明寺)등 일월사(日月寺)보국사(輔國寺) (于輪寺)묘련사(妙蓮寺)왕륜사 (興國寺)연복사(演福寺)의 쇠북녜 쇠북이 울어나왓다. 호국사 궁성 가까히잇는 절에서들 저소리도 섞겨울것이다. 백만 장안이 저녁쇠북소리로 찻을 때에 왕은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황장하섯다.

『開鐘聲。煩惱斷。智慧長。菩提生。出三界。願成佛。度衆生』의 송 속으로 외오시고 몰아가신 노국공주의 명복을 비시엇다.

해저물어 집을 찻는 새들이 연경궁 호원 수풀을 향하고 날아들엇다.

本社出版部發行의 朝鮮初有의歷史的出版

現代朝鮮女流文學選集

忽然 再版賣盡 壓倒的賣行!!

出版界初有의大賞讚 大賣行 再版도 거이賣盡되여 三版刊行에着手 不日發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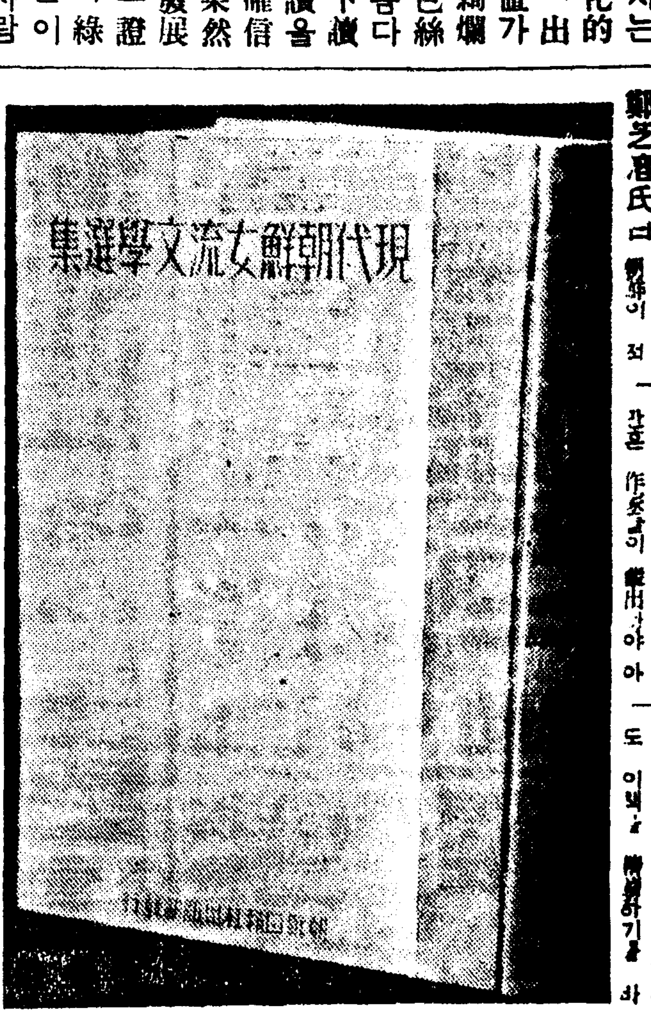
朝鮮에 新文化의길이 開放된以後 女流의손으로 文學을創作하야 世人의耳目을 끄을엇던지도 이미 十有餘年 이제와서는 오히려 鬚髯男子를 凌駕하는 곳에까지 이를엇다 才華와 實力을 具有한者 十數人의 作品을 選拔하야 女流 文壇의 第一期的 淸算을 보이는 意味에서 이 一書를 刊行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 出版은 다른 모든 書籍과는 그 意義가 自別하야 다만 이것이 文壇的 事實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文化的 社會的인 곳에 이 出版의 眞義와 價値가 잇다고 밋는다 絢爛한 五色珠玉을 色絲로 꿰인듯한 아름다운 이책은 滿天下讀者의 熱狂的 愛讀을 밧고야 말것을 確信하고 잇거니와 果然 朝鮮의 文學的 發展相을 이 一卷으로 證驗하게 될것이다 綠陰과함께 보내는 이 貴重한 선물을 사람마다 밧아서 精神의 기름진 糧食을 삼아주기를 바란다

李軒求氏曰 꿈꾸는處女의 抒情的인 안해 굿센어머니 그리고 湖水가튼 秘密을 감춘 女性의 世界를 알려는이는 반듯이 이책을 읽으라

鄭芝溶氏曰 朝鮮이 적 보니 詩 [illegible] 子들에게 맛길일이 아닌가 한다

李孝石氏曰 어느틈에이 [illegible] 作家들이 [illegible] 을 밋는다

李泰俊氏曰 이책은 훌륭한 말의標本이다 男性들은勿論 요즈음 新女性까지도 이책을 [illegible]하기를 바라



四六版三百六十頁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定價一圓 (送料二十二錢) 振替京城五八七八

[illegible]은 땅일지라도 山川이 秀麗한탓으로 男女間에 名賢과 人物이 自古로 끈히적이업섯다 오히려 이選集을 [illegible] 룸다운步調를 자랑하게되엇는지 一種驚異의感이 일어난다 이땅에잇는 모든사람이 다 이책을 賞讀하실것이다 [illegible] 란다 또文壇에 일즉이 이런 爛漫한花束이 던지어진 적이업섯다

安懷南氏曰 「女流 文學 選集은 바로 노랑저고리와 분홍치마를 입은 이땅의악씨들을 表象한 가장 아름답고 高尙한 꽃이라고 봅니다

白 鐵氏曰 朝鮮女流文學의 近代史에 一段落을 지은 이책은 最初의 꼿다발이다 아름다운 선물을 밧어라 한사람도 빼지지말고

金珖燮氏曰 누구나 읽어서 文學女性의 心境에비처인 朝鮮의情緖와 風土와 人生과 社會를 맑게 享受하라

朴鍾和氏曰 샛파랏하늘빗 表裝, 진달래빗 아롱다운 輪廓, 千紫萬紅의小說, 詩, 時調, 隨筆은 참으로 百合과갓고 薔花와갓고 睡蓮과갓다

崔載瑞氏曰 이冊內容의 多彩豐富함은 그것 그대로 新鮮할뿐아니라 또한 知識朝鮮의 一面을 代表할 權威잇는 存在가될것이다

朴英熙氏曰 朝鮮女流文學은 이책으로부터 巨大한 第一步를 내어노핫다 各各 代表的力作을 모핫스니 어떤 알지못할 光輝를 차저 마음의 糧食을 삼기에 足하다

三品一圓均一賣出

六月劈頭의奉仕! 一品一品이皆是精選特良의膳物!!
斷然絶大하신好評을博得하옵는 弊店獨特의奉仕提供
一日부터 七日까지

提供品一例
◇男子雜貨 넥타이 카라 스펫취 化粧品 [illegible]
◇婦人雜貨 [illegible]
◇兒童雜貨 [illegible]
◇家庭雜貨 洗面器 家庭藥 [illegible]
其他充實 以上任意로選擇하시와三品에一圓으로提供

明治座入場券付 人蔘精石鹸宣傳賣出
三對一의當籤率로 明治座入場券을 進呈하옵고 其他無漏粗品進呈 新館一層

各層賣場案內(主要)
라이온齒粉·齒舍賣出…新一層
各種夏蒲團賣出 新二層
趣味의團子·團扇賣出…東二層
노-타이샤쓰賣出 東三層
婦人兒童服地陳列 (無料裁斷)…東三層
小學生服賣出…新四層
藤椅子셋트陳列 東四層
白靴大特賣…新五層
함목크賣出…〃

和信美容部 施設完備·技術練熟 아모조록利用하야주십시오

京城 和信 六層 호一二 午前八時半開店

本日 虫下에 マクニンデー
먹기쉽고·잘듯고·害가업다 마구닌
學校에서도마구닝
工場에서도마구닝
家庭에서도마구닝
1、効力이强하고副作用中毒作用업다
2、死虫으로나옴으로 不快感이업다
3、一回의多量服用連續服用共히安全
4、下劑의必要업다 맛이조아먹기쉽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朴耳鼻咽喉科医院 朴喜鎭 鍾路二丁目 永保빌딩二階

白菜種 豫約店·行商員急募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認可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聖業全鮮唯一認可 (失業絶無成功必至) 學則送呈要三錢郵券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醬油 調味料 昭和ミツサン醸造所 (營業案內書進呈) 釜山府佐川町三四四番地

農林省御指定 特許 中島式自動製粉機 天下の名機 中島式 製粉有益 利益多大 型錄進呈 三府四十二縣指定機·補助金付 中島製粉機釜山販賣所

經濟解說 爲替管理强化 ②

一月八日부터 實施한 輸入爲替의 入代金의決濟及外國爲替銀行의海外指圖에依한 支拂制限에關한 外國爲替管理

法에 基한 大藏省令은 關稅引上 擴張膨脹에依한 外國品의 輸入增을 豫想한 投機輸入이 一時的急增된結果 外貨需要가 增하고 이것이 市勢引下의 原因이된것으로 이것을 防止하고 海外의 國債에依하야 時勢의 動搖를 招來함을 防止키爲하야 外國銀行의 海外에서의 國債를 抑制함이 目的이엇는데 이것으로는 豫想輸入을 調節한다는 一時的問題로서 同省令은七月末을 期限으로한 暫定的措置로서 公布된것이다 그런데그後二個月의 貿易內容은 어떠한가? 輸入은 許可制施行以前에 이미 爲替取組가 行하엿스므로 三個月間에 未曾有의 增加이엇던것은 前述과갓다 [illegible]

不急品 輸出品은 依然되어잇지안타 × 正金銀行의 爲替統制[illegible] 에 依하면 昨年一月과 今年一月을 比較하면 反하야 輸入品은 一個四億圓라는 二倍半의大幅引上으로서 그만콤 入超가 增大된計算이다 大藏省은 적잔히 [illegible] 品 不必要品의 輸入抑制를 實行한것인데 輸入品中에서 當面輸入을 抑制할수잇는 品目은 極히 少額이오 大藏省의 보는바로는 五 六千萬圓이라고 말한다。五千萬圓이라면 全輸入品의 二分以下임으로 거의 問題가 안되는 金額이다。

어 一部商品의 輸入抑制는 爲替安定을 目的으로하는것인데 爲替市勢가 經濟活動의 健全不健全의 集中的表現인 意味에잇서 日本經濟를 직히기爲한 ×[illegible] 大한 國際的인 [illegible]

爲替管理는 明年度부터는 [illegible] 와 貿易外收支의 改善만으로는 어쩌할수업게 되어 이와 並行하야 國內에서는 物價騰貴를 抑制키爲하야 投資統制를 行하고 對外的으로는 貿易統制를 行하야 入超를 極力 減少되게 하는 政策을 取하게되어 今後는 爲替管理에對하야 一層强化될것이다

一、爲替管理省令은 七月末을 期限으로하는 臨時的措置로서 發布되것이나 當然그期限은 延長되는同時에 小額輸入도 許可制로 强化한다

二、許可基準의 變更—省令은[illegible]

三、少額輸入의取締—不急品、不用品이라면 紡績奢侈品類인데 此等貴金屬、化粧品、카메라類等은小商店이 輸入하기때문에年額三萬圓以下의 少額輸入은 許可를 要치안케 되어 省令延長의 機會에 少額을 下로 許可를要함

四、滿洲、關東州의爲替管理强化—現在、兩地共히 貨物輸入에 關한取引은 自由로되어잇슴으로 滿洲에서 輸入하고日本內地에 輸送하는 脫法手段을 講究할 危險이잇슴으로 이點의 取締를 可能할

五、金現送의 增額이 미第二次現送을 發表하고 近間(?)第三次現送을 加하야 一億六千萬圓程度가 米國에 送金되는데 이에 依하야 本年의 入超增加를 만흠의 輸入資金이 調達될수잇을 도록 問이며 明年은 豫算膨脹의 生産設備、原料의 輸入이 飛躍的으로 增加될것이 必至임으로 政府는 産金獎勵와 同時 金現送政策을 繼續할것이다(了)

生産力擴充國策에 金融實勢逆行

起債、國債의消化依然히困難

準戰體制에 大難關

【東京】最近金融情勢를보면 貿易은 七八厘를 上下하야 表面異狀이업는듯하나 裏面에잇서서는 政府의政策에 基한 矛盾이深化하야가는 形勢로서 그結果 銀行家는 政府所見에 對하야 反對立場에 스게되는 容易치안은事態에 向해 해진다。이難關에 對한 政府今後의 手段이 注目케되어스니 卽目下金融界에 잇서서는 生産擴張에 依한 資金의 需要가 激增되고 從하야 그供給이 不足을 告하야 地方銀行은 別問題로하고 市中大銀行의 手許는 想像外로 逼迫하야 所持公債賣却으로 간신히 資金을 補코잇는터이다

金融 公債의 賣行不振은 今後의 國策遂行에 非常한 支障이 될뿐아니라 思惟이 조곰미의 危險을 胚胎케되고 從하야 그敗黃에는 目下 金利를 더욱低下식히는 以外에 他途가업서 過般日銀이 最低貸出期間을 短縮한것이나 또 國債擔保貸出率을 商業手形과 가리 九厘로 하리라는 說이 나오는것이나 機構擴張은 所謂準戰時에의 對象으로서 事業會社가 自動、他動兩方面으로 資金에 餘裕가 잇는 會社는 이것을 引出하고 그러치안은것은 社債에 依하야 이것을 賄코저하고잇는데 그것이 發行難임으로 할수업시 借入金에 依케되고如斯하야 銀行의 資金逼迫으로 나타나게된 것이다 따라서 이로實務로서보면 當然金利引上이 妥當하다 大局論으로 이것이 抑制되어잇는 狀態이다 一方右와가튼

生産

政策 逆行과 金融의 實勢와는 明白히 矛盾撞着을 示하얏고 昨今에 至하야 特히 深刻케되것이 看取된다。過日의 日銀金融懇談會 席上 今後의金融政策에 人爲策을 弄치말기를 銀行側으로부터 要望한것도 이런 事情에 基한것으로 이 解決은 容易치안은만큼 今後政府의 態度如何가 重視된다한다。

模索의 結果는 暫定的傾向이 續出할것 갓다는 東一銀行의 整理問題는 잘모르나 何等의 缺陷이 잇슴에 틀림이업스므로 이것을 根本的으로 治療할 必要가 잇다 加藤總裁는 十日頃 歸任할 豫定이다

京城、平壤、釜山에 鐵道改良事務所

管掌事務決定

鐵道局에서는 一日부터 釜山京城 平壤三個所에 改良事務所를 新設하기로되엇는데 그各事務所의 管掌할事務는 左와如히 決定하엿다한다

一、釜山改良事務所=1、東海中部線改築工事關係事項 2、三浪津釜山鎭間複線工事關係事項 3、佐維若木間基面上昇工事關係事項 4、馬山三浪津間 改良工事關係事項 5、大邱操車場新設工事關係事項 6、釜山及 釜山鎭驛改良工事關係事項 7、沙上 校川間基面上昇工事關係事項

二、京城改良事務所=1、永登浦大田間複線工事關係事項 2、漢江橋梁改築工事關係事項 3、京城及大田操車場新設工事關係事項 4、第一 第二漢江橋梁改築工事關係事項 5、臨津橋梁改築工事關係事項 6、龍津江橋梁改築工事關係事項

三、平壤改良事務所=1、鴨綠江橋梁改築工事關係事項 2、淸川江橋梁改築工事關係事項 3 大同江 橋梁改築工事關係事項 5、平壤操車場新設工事關係事項

東一銀行의 大刷新講究

拔本塞源의根本策

東一銀行의 刷新 更迭問題는 同行內部에서도 愼重히 硏究하는 一方 朝鮮銀行及財務當局에서도 問題가 續出하는 根本的原因의 究明과 그交際에對하야 各其對策을 硏究하는 中임으로 來七月末에서 拔本塞源의 根本對策이 斷行될豫定이라한다 그 方法은 먼저 人的要素의 一大刷新을 企圖하는 同時에 株主間의 對立一掃、行員의 生活 安定等에 解決을 行할 것이라한다

市川專務引退

東一銀行 市川專務는 辭意表明中인바 任期滿了로 來七月定時總會에서 勇退키로 內定하얏는데 後任은 朝鮮銀行幹部級의 手腕力잇는사람이 拔擢되리라 한다

東銀根本的 治療必要

公森朝銀副總裁談

朝鮮銀行副總裁 公森太郞氏는 三十日 歸任하야 如左히말한다

金融情勢는 依然硬化氣味가 强하다 米穀證券의 償還과 低資의 散布等 政府의 支援資金도 相當히잇는듯하나 結局所用이 업다 一方公債는 依然히 잘 팔리지안해서 目下九十七圓七、八十錢인데 九十八圓台는 政府로서는 깨트리지안코저할모양이다 生産設備의 擴充에 伴하야 株式의 拂込과 增資等에 依하야 資金은 이方面에 集中되는 現狀으로 公債는 依然 完치못할것이다 銀行도 困難하고 將來의 公債發行計畫에도 支障을 招來하게 슴으로 公債價格의 維持策이 講究될것이다 起債도 이런 關係로 仝혀 停頓狀態인데 條件逆轉은 低金利政策과 矛盾을 生하고 이것저것으로 起債界는 窮塞되어잇는데 資金을 要하는 곳에서는 結局借入金政策을 갓고 適當한時期에 社債를 振替하자

繭資金에는 不安업다

但金利는硬化?

朝鮮內春繭은 掃立後의 氣候가 適順하야 早場南朝鮮地方은 六月上旬부터 出廻되엇는데 本年度의 繭資金에 就하야서는 例年과 달리 深刻한 資金難을 現出한 마츰 注目되지만은 繭資金取扱은 朝銀及一銀과 三井物産等에서 하므로 比較的 資金不足이업는 方面으로서 約三千萬圓의 繭資에 不安이 업고 다만 金利는 若干硬化되리라 未卒하리라한다

朝銀券保證準備

二億으로 擴大說擡頭

朝鮮銀行의 保證準備의 擴充은 臨時議會에나 느저도 通常議會에는 上程할目標下에 工作中인데 이에對하야 朝鮮內金融界에서는 當面의 金融情勢로보아 그早急實現을 希望하고잇는同時에 擴充內容에 就하야서도 倍大인 一億圓說을 姑息이라하야 적어도 朝鮮內經濟規模膨脹을 考慮하면 二億圓程度가 妥當하는 意見이 提議되다한다

이것은 最近及當面에 豫想되는 金融情勢는 朝鮮內의資金取得에 關하야 社債券에依한 方法이 困難함으로 開發資金은 結局 朝鮮內에 依하야 調達되어야할것인데 그資金은 周知하와가리 貧弱함으로 朝鮮行의 保證準備에 依存치안을수엄고 이것을 생각하면 倍大一億과 如한것은 姑息的手段으로 平時發行高一億五千萬圓程度의 現在로보아 二億圓이 妥當타는 見解까지잇다한다

會社總會一束

○都市經營 朝鮮都市經營에서는 卅一日 午前十一時부터 第十一期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今期決算案(八分配當)을 附議、異議업시 可決하얏다

○朝鮮皮革 朝鮮皮革에서는 廿九日 永登浦本社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二分增配인 六分配當案을 可決하고 이어서 臨時總會를 開하고 如左決定하얏다

一、拂込徵收完了報告件 資本金五十萬圓을 百萬圓으로 增資(渡邊商店買收에依함)

二、役員增員件(取締役三名、監査役一名增選)

三、役員報酬件(役員會一任決定)

四、大阪支店設置와 大阪工場買收件(原案可決)

恐慌前에復歸 春繭景氣現出

▲沼津乾繭初取引

【沼津電話同盟】待望의 沼津乾繭初取引은 二十九日 午後一時부터 沼津市繭所에서 景氣가 조케 開始되엇다 前日來의 梅雨모양이엇든것도 正午에는 快晴이되고 地元의 石橋、昭榮、山下各製絲及 멀리 愛知、信州、山梨等으로부터 續續來集 開場까지에 三十數社에 達하얏다 同續의結果는 十四匁라는 豫想以上의 好成績으로 活氣旺溢한形勢이엇다 午後一時 田胡靜岡縣經濟部長이 場內에設한 蠶神에 新繭을奉奠、齋藤同縣知事의告辭가잇고 午後一時二十分 立會가 시작되여 田村北部養行組合의稻田久吉氏外 一個百八荷口를 비롯하야 共同入札에依한 最初의 初取引이 開始되바 그結果 同荷口黃繭落札價格은

乾繭十貫匁 百五十五圓六錢

(乾燥率三八%九二)

生繭一貫으로換算 六圓三錢

落札者 ⓐ淸水市 愛知製絲 掛目四十二掛

이라는 昭和四年以來의 高値로서 蠶絲恐慌以前의 市勢에 復歸하야 生繭處理에 劃時期的인 乾繭初取引場內待望의 春繭景氣를 示現하야 興奮裡에 終了되엇다한다

▲濱松乾繭初取引

【濱松電話同盟】濱松乾繭取引은 三十日午後五時蠶入際蠶絲課長의 인사가잇고 豫約取引에移하얏는데 上場物件大口四件 大凡千貫(其外에小口凡百五十貫)으로 絲量平均十三匁八、掛目平均四十二掛弱 高價五圓九十九錢(乾繭換算百六十五圓四十錢) 低價五圓六十四錢(乾繭換算百五十五圓九十錢)平均貫五圓七十錢이엇는바 來客은三十餘名이엇다

【濱松電話同盟】濱松乾繭市場은 沼津市場의뒤를이어 三十日前十時부터 먼저驚津湖西出張所에서出廻 凡九千貫(乾繭三千三百貫)에對하야 荷口마다 取引을 開始하고 日曜日임으로 紡商내소냐等의人氣가 冷靜하야 갑은五圓八十錢이엇다

【沼津電話同盟】沼津乾繭市場의 三十日의出廻高는 八百四十七貫이엇고 其中黃繭七百七十八貫七十匁로 高價五圓七十錢 低價四圓十錢 買剛五圓二十一錢四厘 掛目四十掛 白繭六十八貫九百四十匁(一日) 平均價格四圓五十錢 掛目三十七掛이엇다

下旬對外貿易

入超二千九百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五月下旬對外貿易槪算調는 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一一〇、八三九
輸入	一三九、八六四
合計	二五〇、七〇三
入超	二九、〇二五
入超累計	五三八、八〇四

漁業組合中央會 發會式擧行

慶南北、全南北、京畿、咸南北、平北、江原、黃海十道各漁業組合聯合會를 一丸으로하는 朝鮮漁業組合中央會의 發會式은 三十一日午前九時부터 京城公會堂에서 擧行하고 各道百九十三組合代表가 出席하야 右中央會組織에關하야 協議하얏다

(廣告) 取引停止 五月廿七日 京城府瑞雲町 九〇 李秉鎬

寸鐵

○政府는 적어도 公債九十八圓臺는 維持코저 애쓰는모양인데 그方法?

○東銀問題에對하야 監督銀行인 朝銀正副總裁는 拔本塞源의 治療가必要하다고말하는데 그方法?

○下旬入超는 二千九百萬圓으로 減해젓는데 다시는 더늘지안을가? 出超期에얼마나 貿易을改善할가?

經濟日滴

鹽販賣高 專賣局五月中旬鹽販賣高는 合計一千百六萬三千六百四十九瓩으로 各所別로示하면 新義州 百五十七萬九千二百瓩 鎭南浦 二百七十五萬一千百二十瓩 仁川 二百七十五萬一千百二十瓩 群山 九十萬八千四百瓩、木浦十五萬六千瓩、釜山百三十萬二千瓩 元山七十六萬八百瓩、淸津八十五萬六千九百二十瓩이다

○物産協會總會=朝鮮物産協會에서는 六月八日午後二時부터京城商工會議所에서 本年度通常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件을 附議하리라고

一、昭和十一年度會務報告

二、同上決算並財産目錄承認件

三、昭和十二年度收支豫算決定件

四、役員定期改選件

今日의市勢(卅一日)

株式 嫌氣賣로 續落

前場反落 前週末鐘新高로 因한少堅味도鈍化하야 少弛裡에 週末을告하엿는데 今朝에는米國株式도 메모릴데ー休會로 入電이업는데다가 鐘新은東京의四圓九暴落을筆頭로 各地가瓦落되엇스므로 當地는鐘新二圓五低 東新七十錢低等으로 軟弱寄付하고 朝取新은 配當落으로 親株九十圓十錢 新株三十二圓九十錢에 寄付하엿는데 市場은掩敝하고잇는陰鬱한氣分은 依然撤去되지못하고 賣人氣가强하여저서 漸弛步調로推移되다가 結局鐘新二百六十七圓五十錢 東新百四十九圓丁 日産八十八圓七十錢 大新八十九圓三十錢等으로 不勢裡에前場을마치엇다

後場底堅 後場은 鐘新五十錢低、東新十錢低 大新三十錢低、日産五十錢低等으로 續弛裡에始場한後 反高商狀이되어底堅하止場하엿다

嫌氣的인場面

東新 大新이 各一圓三十[illegible]

產金株만堅調

纖維株의 漸衰는 尙今곳치지안코 割高物엔는 賣方의賣叩도잇고 戾價에는 買方의投物도잇서 續落場面을 보이고잇다。日曹系三圓丁으로 一圓低이오 日曹릴푸도 二圓一低로 二十一圓이며 日曹鑛도 二七、五로 一圓三低이엇다。纖維株도 鐘新反落에따라 紡績株가軟調이며 人絹株는 昭和人絹의 二圓暴落、日本紡新의五低、東邦人造의一圓一低、人造羊毛의不變、東邦人絹의五低 東洋모스新의三低로 不勢인데다만帝麻、日滿亞麻新만이不變의保合이엇다。船舶株도東洋汽船新의五低、浦賀의五低 石川島의五低等으로不冴이며 大島製鋼도五低로 四九圓丁이엇다。石油株는日石新의 一圓低이오八、五 旭石油新

市場六感

株……東新大新이 配當落으로 低價에 突入햇스므로 底調도 終了하엿다고 一高警期待하는이도 잇스나▲그러한 理由보다는 越月後의金融情勢가 將히 注目될이나 逼迫狀態가 繼續되는限道理것을 노로▲高價에서 買한買方이 逃避處를 기다리면 기다릴사록戾가업스니▲買方의니期待에 牽制되어 市勢는反弱한 光景▲그러라면 차라리賣追擊으로 存殘한 買玉을 投하게 하는것이 效果가 빠를것이 아닌가▲그러나 어것을 보고 賣衆하야 賣玉超過가 되는것도 將來賣方에 對한 禍根인가 생각하면 何必賣方만 不利한것도아니다▲越月後의 環境情勢나 判斷한後에 態度를決定할일……

米……今朝東阪兩地는 當限落後를 機로한 新規賣物이 續出하야 十餘町이나 反落▲當地亦 追隨하는모양이나 一時賣過의 反動으로 比較的底堅▲二百二十丁이 擴當되엇슨바 仁의 前은 百九十餘丁으로 反히 縮少되엿다 아즉도 縮少할 餘地가 尙多▲明一日에는 八月限이 發生! 此限의前途는 果如何?▲此限時代부터 一點雲、一滴雨의 天氣如何를 注目하게되엇다 그런데 日本內地는 天候不順、朝鮮은 아즉 順調、今後는 如何?

國債 無活氣의 少弛

▲東京【東京電話同盟】不透明과 月末警戒氣分으로 活氣가업서 內債는 部分的으로 小弛하고 이에따라 外債도 買氣가 적어 佛貨五錢低 弗貨도 弱合이엇다 越月後의 金融情勢觀望으로 顯著히 活氣薄

▲佛貨 一九六〇〇 ▲二回四分利 一〇三二〇 ▲二一四〇 ▲二回四分利 一〇一七〇

大阪 甲五分利 一〇二二五 ▲二〇年四分半 一〇一九五 ▲一九年四分半 一〇一三二 ▲一回四分利 一〇一四〇 ▲二回四分利 一〇一四五 ▲三號四分 一〇一四五 ▲二三年三分半 九七八〇 ▲佛貨 一九五五 ○ ▲米貨六分半 三八〇八〇 滿洲公債 一〇〇〇〇

期米 底堅裡에 納會

前場反落 一休今朝는 阪地先限三十四圓二十八錢으로 九丁反落을 擴하고 中은二圓〇五錢인 二丁低로 先限은이라할만한賣買가업시 三十二圓二十六錢인反히 一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節十二錢으로 反落하고 七節十六錢으로 結局阪止 十五錢을보고 十九錢에 止場한바 後場은 受渡로例休이엇다

阪仁俄然縮鞘

阪軟仁硬으로

二百二十丁의 擴鞘를示하엿든 仁阪의鞘는 月末戰에 逼迫함에 따라 二百餘丁으로 縮少되엿다 그原因을 窺하면 這般阪地九十餘丁低落에 對하야 當地는 百

新甫發會豫想

二、三十丁上鞘

明一日에 發會될 新甫八月限은阪地情報에依하면 二、三十丁上鞘로發會되리라는豫測이므로當地亦그程度의上鞘發會를足히 豫期할수잇다 昨年同期에는 阪地先限三十三圓八十九錢 中限三十三圓六十四錢으로 廿五丁上鞘의發會이엇고 當地는 先限卅一圓八十錢 中限卅一圓三十七錢으로四十三丁의 上鞘發會를示하엿스나 昨年同期에는 易騰途中에 잇섯스므로上鞘買의 人氣가 旺盛하엿다 고今年同期에는 去四月의 高價를낸後 因而顚連伸惱의 形勢로 天井後의 步調와如하야 買氣多少萎縮되어 昨年과如한 大上鞘의 發會는期待키難하다는 商談이 자못濃厚하다

仁川在庫米減少

仁川在庫米를 調査하건대 前週同期에 比하야約 四、〇〇二叺의減少이라는바 在庫別은 如左하다

▲玄米一五九 九一四叺(四斗入) ▲白米六七三二九八五(五斗入)六八叺(五斗入)▲正租二九九、四四三叺(五、八六四叺減少)▲大豆六四、一三一叺▲小豆一、四八五叺 ▲大麥三六三叺▲糯白米一、六二〇九叺(裸)▲粉白米一、六二二叺 ▲粟三九九袋 ▲高粱二、三一〇袋 ▲錄豆 三九〇袋 ▲糯白米一、一二〇叺七、〇四七袋 ▲台玄四九〇袋

新甫上鞘豫想

▲大阪二十丁上▲東京十丁—二十丁의 開鞘가또한當然하다고 할수잇다 그러므로 今後朝鮮의需給問題의 豐作氣分에 陶醉되어 賣安心할수업는 處地에잇다 要컨대 앞으로 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豫想인 二百八十四萬石을 移出하지안는다하면 朝鮮의 需給難을 겨우解決할수잇스나 적어도 二百萬石程度는 移出되고야말것인즉 朝鮮의 單獨高는 免치못할것갓다

二十餘丁이나 低落된 것이 안이라 당연한 賣買의 鞘가 어지아니할수 업다고볼수잇고 當然히 五月一日現在의 在庫米는 日本內地米의 四百九十三萬四千餘石으로 朝鮮米는 三千七百四十八萬二千餘石보다 減少率이 比較的 移出量은[illegible]

正米 月越待望 閑散

京城低唱 期米低와 越月待人氣로 賣買不振하야 氣配十錢低唱이엇다 ㊀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 三三、五〇

仁川不冴 賣買는 總傍觀狀態로 자못閑散場面을 繼續中이다 今朝는期米低를 반하야 氣配十錢低落되엇다 ㊀穀良 三一、七〇 三一、四〇銀坊主 三一、九〇 三一、六〇多摩錦 三一、三〇 三一、〇〇 等白米㊁ 一三、〇五 ㊀ 一二八五

釜山不勢 產地는 依然少堅하야 奧地廻着僅少로 定期軟調로 市況은 下落이었다 買方은 必需에 切迫된原料手當뿐이다 ㊀穀良 三一、一〇 三一、九〇 一等白米 一三、二〇

大邱軟調 賣方이 閑散한때에 定月待望 傍觀하야 氣配十錢 反落步調를 보며 三一、四〇 ㊀穀良 三一、九 三一、一〇 一等白米 二一、五

群山軟化 產地는 植付의 盛期가서기까지는 冷靜히바리어賣氣配는 보이지안는다 今朝에는 期米低를보고 十錢軟化되엇는데 賣買는 자못不振이다 ◎銀坊主 三一、八〇 三一、六〇 一等白三一、〇

木浦不冴 賣買는 閑散하여 木浦不冴 月末의 一方賣方도 買方도 期米低로 不安하야 氣配十錢軟落하고잇다 ㊀銀坊主三一、七〇 一等白米一二、二五 三一、六〇

今日財界一日

◆米	今日前場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三〇、三九	八錢安
大阪期米先限	三四、二三	二二錢安
ⓐ三等米	一石 三一、五〇	一〇錢安
京城一等白米	一石 三二、〇〇	一〇錢安
正租(仁川)一等	一斤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	[illegible]	

◆株	今日前場	比前日
朝取新	三二、〇〇	[illegible]
東新	一四九、〇〇	一圓〇〇安
鐘新	二六七、五〇	[illegible]
人絹	[illegible]	
絲花	[illegible]	
砂糖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帝國新 [illegible] ▲日曹 [illegible] ▲人造羊毛 [illegible] ▲日本電氣 [illegible] ▲第二 [illegible] ▲昭和人絹 [illegible] ▲九州 [illegible]

◇今日休會市場◇

大阪 株式市場(短期取引一時間立會)綿絲、棉花、人絹、砂糖 東京 株式市場(短期만一時間立會)人絹

京仁 全益證券 益康 仁川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下丁上▲神戶三十丁 十五丁上▲名古屋二十丁 十五丁上▲仁川二十丁上▲新山十丁 十五丁上▲群山十丁上▲大邱二十丁上 木浦十五丁上

(取組內容 table: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一一 五九 二九 一 六

株式 玉 柳來恒取引店 仁川米豆 株式 現物

海外經濟 二十九日

(海外經濟、銀行券、朝鮮銀行券、日本銀行券、京城手形交換高、金利、對外爲替、金銀價、大阪金利、阪神綿油、阪神綿粕、日本麥粉市勢、綿油粕·麥粉、東京金銀價、京城市中金銀價、京城正米、仁川正米、大阪市中在米高、大阪正米標準價、京城雜穀、仁川雜穀、京城綿系布市勢、綿絲、本絹交織人絹、京城絹布、滿洲商況、大連特產市勢、朝取株式短期、大阪短期、東京短期取組、東京現株、短期主要取組高、朝取期米賣買高、期米各地相場表 — tables: [illegible])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應酬賣販換引金代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

生系 砂糖

◆橫濱生糸 ◆大阪砂糖(S.T) 現物D格 八〇〇圓 [illegible]